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發行人 金在淳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金映宰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703-0755

銀行계좌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제 222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6년 9월 1일

[1]



■ 지난 8월 25일 예술의 전당에서 금난새 지휘, 바이올리니스트 裴玟瑩 협연으로 「동문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50주년 기념 「동문교향악단 연주회」 대성황

관약출추

무릇 세상의 모든 일은 졸속하게 서둘러서도 안되지만, 일단 옳다고 판단되면 너무 우유부단한 것도 옳은 길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느라 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난데없이 웬 수신교과서 같은 사실이냐고 할지 모르나,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에서의 우리 서울대 동문들이 차지한 대세적 판도를 보고 문득 느낀 소감이다.

이미 알려진대로 이번 15대 국회의원의 동문출신은 무려 1백66명이다. 정원 2백99명 가운데 반수를 훨씬 뛰어 넘는 숫자이다. 서울대의 발전을 위해 千

萬馬를 얻은 셈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기회에 우리 모교를 「세계의 대학」으로 발돋움케 하는 기반을 굳혀놔야 한다.

지금 우리 모교는 예산규모, 연구실적, 보유도서수

千載一遇를 살리자

등에 있어서 겨우 세계 8백위를 밑돌고 있다 한다. 명색이 선진국의 진입을 위해 세계화를 외치고 있는 이 판국에 이게 웬일인가 말이다. 더구나 세계화 작업에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대인의 모태인 서울대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니 놀랄 일이다.

여러 분야에 계시는 동문들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입법부에 계시는 동문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각별한 배려와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오는 정기국회에 있어서 예산지원, 특별법 문제에 관해서도 예전과 다른 시각으로 챙겨봐주길 바란다. 혹시 집단이기주의자로 매도될까봐 주저할 이유는 없다.

이제 「서울대」는 우리의 것만이 아닌 우리 「겨레의 대학」이요, 이 나라의 자금을 위해 「서울대」만이라도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CONSENSUS」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막말로 他대학 출신인사도 「서울대」의 학부형인 경우가 적지 않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 (根)

금난새동문의 열띤 지휘에 뜨거운 박수

金在淳회장, “음악으로 화합의 장 이루었다”



본회 金在淳회장(사진 右)이 지휘를 해준 금난새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본회(회장 金在淳)는 「제4회 동문교향악단(SNU Phil) 연주회」를 지난 25일 오후 3시 예술의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에서 동문을 포함한 일반 관객 2천여명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89년 제1회 연주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어 온 동문교향악단 연주회는 올해 모교 개교 50주년을 맞아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음악대학동창회가 주관하여 명실상부한 서울대인의 「화합의 한마당」으로 마련됐다.

이번 연주회에는 지휘에 수원시향의 상임지휘자 금난새(70년 音大卒)동문, 악장에 KBS교향악단 제1악장 金福壽(69년 音大入)동문을 비롯 서울시향, 수원시향, 부천시향, KBS교향악단, 코리아심포니 등의

교향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 1백20여명이 대거 참여했다.

동문교향악단은 이날 공연에서 로시니의 「세미라미데 서곡」, 드보르작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제5번 e단조」와 앙콜 요청에 의해 「윌리엄 텔」을 추가로 선보였으며 마지막으로 모교 교가를 연주하면서 막을 내렸다.

연주회를 마친 후 李南洙음대동창회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리셉션에서 본회 金在淳회장은 「음악을 통한 동문 상호간의 교감으로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연주를 위해 수고해준 음대 동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동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모교 崔松和부총장은 「서울대인의 화합이 곧 겨레의 화합」이라며 「동문 화합의 장」 마련에 힘써온 동창회의 공로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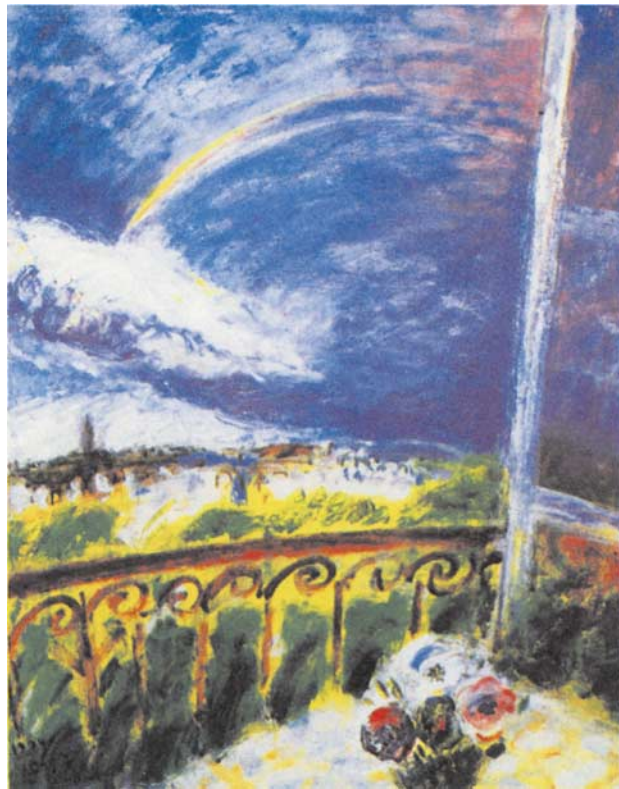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 權寧海안기부장, 李燦河경영대학원동창회장, 李光魯대학원동창회장, 모교 李成均음대학장 등 리셉션 참석자들은 李誠載음대동창회장의 건배제외에 따라 잔을 높이 들어 보이며 고조된 화합의 분위기를 만끽하기도 했다.

본회 金在淳회장과 李誠載음대동창회장은 연주회에 참여한 금난새, 金福壽동문, 바이올린 협연을 한 裴玟瑩(음대 1년)양과 후원을 해준 서울방송의 尹世榮회장, 중앙일보사의 洪錫炫사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熙)

미술작품

沈竹子作



「무지개」, 30F, 유화, 1995.

〈작가 약력〉

△서울대 미대졸(55년)
△한국여류화가회 창립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 작가전
△서양화대전
△광복 40년 현대미술 40년

전
△서울 정도600년 기념 아름다운 서울전
△한중 여류작가전
△양가주망 동인전
△한국수채화 작가회전

동창회 장학금 1억8천여만원 지급

작년보다 4백60여만원 더 많아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이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본회를 비롯한 각 단과대학(원)동창회는 최근 96년도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후배들의 학구열을 독려했다.

이번 장학금은 본회(재단법인 관악회)가 83명에게 9천2백32만7천5백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 각 대학(원)동창회에서 총1백92명에게 총1억7천8백84만6천5백원을 지급했으며 前年同期對比 인원은 29명이 줄었고 금액은 4백63만8천원이 늘었다.

본회(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金在淳)는 지난 22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李世震사무총장의 사회로 96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金善娥(人文大 3년)양을 비롯한 83명에게 9천2백32만7천5백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악회 白文

基이사, 李誠載음대동창회장, 李吉女의대동창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鄭宗澤상임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선배들의 정성이 담긴 만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각 분야에서 성공한 후에는 다시 후배들을 도와주는 선배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모교 白琮鉉학생부처장의 격려사에 이은 답사에서 李承眞(자연대 석사과정)군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학업에 정진하여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4층 부폐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각 단과대학(원)동창회에서 지급한 장학금과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가정대동창회(회장 李仁

子)= 목련회장학생 1명:1백10만8천원 ▲간호대동창회(회장 楊銀淑)=5명:5백74만4천원 ▲법대동창회(회장 李奭熙)=낙산장학회 42명:3천5백28만원 ▲상대동창회(회장 張禮準)=향상장학회 34명:1천7백만원, 연구보조비:3백만원 ▲수의대동창회(회장 金範來)=1명:70만원 ▲약대동창회(회장 李禮植)=5명:2백50만원 ▲음대동창회(회장 李誠載)=1명:1백28만1천원 ▲치대동창회(회장 金讚淑)=4명:6백만4천원 ▲대학원동창회(회장 李光魯)=4명:4백80만원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李燦河)=2명:2백10만2천원 ▲행정대학원동창회(회장 姜敏求)=5명:5백50만원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朴重培)=5명:1백50만원

장·차관급에 동문 대거 등용

金泳三(51년 文理大卒)대통령은 지난 8월 8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에 韓昇洙(63년 行大院卒)동문을 임명하는 등 부분개각을 단행했다.

정보통신부 장관에 康奉均(69년 商大卒)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과학기술처 장관에 具本英(70년 商大卒)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각각 임명했으며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李錫采(68년 商大卒)정보통신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정부 2원 14부 5처 장관직을 15명의 동문이 차지했으며 청와대 金光一(62년 法大卒)비서실장을 비롯, 11명의 수석비서관중 9명이 동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3일에는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에 韓榮成(63년 文理大卒)前과기처차관을 임명했으며 차관급 인사에서 국무총리 행정실장에 金容鎭(63년 文理大卒)은행감독원장, 통일원 차관에 金錫友(67년 法大卒)前청와대 의전수석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에 林昌烈(66년 商大卒)과기처 차관, 과기처 차관에 李富植(66년 文理大卒)前해운항만청장, 법제처 차장에 金弘大(70년 行大院卒)법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韓昇洙



康奉均



李錫采



具本英



韓榮成

상대동창회

향상장학금·교수연구비 전달



張禮準상대동창회장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商科大學同窓會(회장 張禮準)는 지난 22일 「상의클럽」에서 「향상장학회」 96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張회장은 이날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장학생 34명에게 1천7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연구보조비 3백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朴容晟부회장을

비롯해 임원 10여명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 하며 선후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同會는 「기우회」 주최로 오는 9월 15일(日) 오전 9시부터 서초동 소재 「일품기원」에서 제1회 회장배정팔 바둑대회를 개최한다.(문의전화 753-2277) (志)

10 OCTOBER 1996

“동그라미 하세요”

SUN MON TUE WED

6 7 1 2

13 14 8

20 21 15

27 28 22

29

29

29

29

29

29

29

29

29

정겨운 친구

와 가족의 손을 잡고

가을의 흥취가 물씬 풍기는

관악의 품으로 달려갑시다!

오는 10월27일은 등산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멋진 이

가을에 동문여러분을

초대합니다.

鮮于仲皓총장·崔松和부총장 해외지부 방문, 모교지원 당부

모교 鮮于仲皓총장은 지난 8월 13일부터 26일까지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을 방문, 해외 동문들과의 면담을 가졌다.

독일대의학술교류처(DAAD)의 초청을 통해 독일을 방문한 鮮于仲皓총장은 한·독 학술교류 증진 방안에 관해 독일대학총장협의회 및 DAAD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아울러 아헨공대, 드레스덴공대, 자유베를린대를 방문, 대학교육 현황을 시찰했다.

다음 방문지인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현지의 해외 동문들과의 면담을 통해 개교 50주년 기념사업에 따른 해외 동문들의 참여 및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콜롬비아대학교와 시카고대학 등 미국의 대학을 직접 방문해 이들 대학의 현황 및 발전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한편 崔松和부총장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조지아지부, LA지부 등을 방



鮮于총장이 DAAD사무총장등과 학술교류 방안을 협의했다.



좌로부터 두번째 李漢植시카고지부동창회장, 鮮于총장, Sonnenschein시카고대학총장.

문, 모교가 「세계의 대학」, 「민족의 대학」, 「학문의 대학」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해외 동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崔부총장은 「모교가 「캠페인

200」을 통해 개교 50주년 발전기금 조성을 하고 있으며 이는 각종 연구 및 시설확충에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지부

金錫鍵회장 연임



96년도 정총을 마치고. (앞줄 좌로부터 네번째 金錫鍵)

태국支部同窓會(회장 金錫鍵)는 지난 7월 25일 방콕 소재 「델타 그랜드 퍼시픽호텔」에서 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개선에서는 金錫鍵(UNESCAP 경제지문관)회장이 연임됐으며, 태국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鄭天亮감사(외환은행 방콕지점장) 후임으로 吳正一 부회장(Allied C&D사장)이 선출됐다.

부회장에는 金麟燮(서울회관 사장), 朴雲泳(Oriental Korean Food사장), 金相燁(유엔 CCOP

사무총장), 安景子동문이 유임됐으며, 李宗淳(Asia Pacific Telecom 사무총장)동문이 새로 임명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본회에서 보내준 모교 개교 50주년 기념 축하공연 「관악인의 밤」을 담은 비디오를 관람하며 모교에 대한 추억에 잠겼다.

한편 金회장은 지난 8월 8일 동창회관을 방문해 본회 李世震사무총장과 동창회 활성화 방안 및 협조 사항에 대해 환담했다.

제주지부

재학생과 대화모임 가져

제주支部同窓會(회장 金炳贊)는 지난 8월 2일 제주시내 데일리부페에서 재학생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여름방학을 맞아 귀향한 1백여명의 후배 재학생과 50여명의 선배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 한 이날 모임에는 金永植(57년 師大卒)前문교부장관, 愼鏞廈

(61년 文理大卒)모교교수, 金世澤(63년 法大卒)駐오사카총영사 등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玄林鍾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金회장은 「후배 여러분도 선배들 못지 않게 열심히 학문연구와 인격 도야에 힘써 달라」고 격려했다. (燮)



LA지부동창회 간담회.(앞줄 좌로부터 세번째 李丙俊재미동창회장, 車鍾煥고문, 崔松和부총장 내외)

동창회 회원 1천2백여명 늘어

모교 9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말 거행돼 동창회는 1천2백14명을 신입회원으로 맞이했다.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 분	8월졸업	총회원
인 문 대 학	93	6,583
사회과학대학	100	8,362
자연과학대학	50	6,605
가 정 대 학	8	2,565
간 호 대 학	—	2,612
경 영 대 학	40	3,782
공 과 대 학	68	28,748
농업생명대학	69	15,798
문 리 과 대 학	—	9,731
미 술 대 학	12	3,594
법 과 대 학	55	12,630
사 법 대 학	55	20,498
상 과 대 학	—	6,723
수의과대학	3	1,611
약 학 대 학	—	5,074
음악대학	17	5,284
의 과 대 학	—	8,750
치 과 대 학	—	4,791
대 학 학 원	559	46,751
경영대학원	—	701
교육대학원	—	653
보건대학원	35	2,069
사법대학원	—	508
신문대학원	—	264
행정대학원	29	3,259
환경대학원	21	1,319
소 계	1,214	209,265
준 회 원		13,338
(단 기 과 정)		4,501
총 계		227,104

이로써 동창회 총회원 수는 22만7천1백4명(준회원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원)별 회원 수는 별표와 같다. (명단 24면 게재)

약대동창회

10월 6일 「동창의 날」행사

藥學大學同窓會(회장 李禮植)는 지난 14일 동창회관 「서라벌」에서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20여명의 임원이 참석해 동창회보와 명부 발간에 대해 논의하고 모교 지원 중 학장 활동지원비를 50%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同會는 오는 10월 6일(日) 오전 10시부터 모교 노천극장에서 「'96 동창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그 어느때보다盛大하고 화려하게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일본인 동문들의 모임인 「藥窓會」 회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약대동창회는 회장단회의를 열고 「동창의 날」행사를 준비했다.

예정이며, 수익금은 간호대학 건물 건축기금으로 출연하게 된다.(문의전화 742-7324)

약대 22회

LA에서 총회가져

약대22동기회(회장 金閔鍾)

의대 30회

졸업 20주년 홈커밍 행사

의대30동기회(회장 安秉文)는 졸업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14일 모교 의대 대강당에서 모교 방문 행사를 갖고 사은회와 경주 가족기념여행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모교 방문 행사에는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도 초청해 모교를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신라호텔 다이내스티룸으로 자리를 옮겨 은사님을 모신

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미국 LA에서 임시총회를 가졌다.

행사 첫날인 8일 LA에 도착한 한국 회원들은 현지 회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

회원들은 3박4일동안 국립공원 등을 함께 돌아보며 정다운 시간을 보내고 동창회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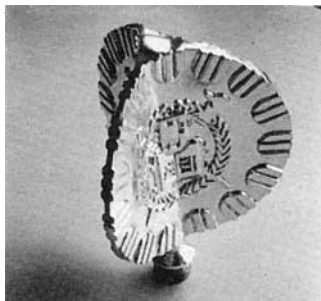
국내 거주 회원들은 12일 현지 동문들이 주축이 돼 마련한 디너타피에 참석한 후 13일 귀국했다.

이 달의 만평은 쉽니다

동창회기 깃봉을 제작 기증 白文基 관악회 이사 자비로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인 白文基(50년 美大卒·예술원 미술분과위원장)동문이 최근 동창회기 깃봉(사진)을 자비로 제작, 동창회 사무처에 기증했다.

이 깃봉은 기존의 회기 깃봉에 새겨진 서울대학교 로고 대신 총동창회 로고를 새겨 제작했다.



의대30회는 졸업20주년을 맞아 모교를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멀지않아 가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기구 가입을 위해 우리 현실에서는 다소 무리할 정도로 OECD가 요구하는 각종 시장개방과 국제경제규범 맞추기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수업료」 지불과 부작용이 불가피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는 경제사회적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신인도(信認度)가 높아져 금리가 싼 외국자본을 들여올 수 있고 외국인의 국내투자효과를 높이며 소비자보호, 환경·노동 등에서도 선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수업료」지불 불가피하지만

또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홍보 효과도 적지 않아 보인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OECD 가입을 서두르는 것은 내년 대선(大選)을 앞두고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처럼 홍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서도 이런 점을 읽을 수 있다.



누리나무광장



李東和

서울신문 주필

참된 先進의 기쁨을 누리려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사실 기분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진정한 선진 수준에 와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렇게 기분좋은 일은 많은 일들이 널려있다. 선진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국가와 민족보다는 대권(大權)에만 초점이 맞춰진 왜곡된 정치행태, 특정지역끼리만 뭉치고 나눠먹는 정치오염의 확산, 기업은 망해도 부도난 기업주는 살찌는 불가사의, 사치품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청량음료와 TV 등 생필품에도 고율징세하는 비논리.

시시비비 가릴 능력 길러야

그밖에도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맡은 경찰을 화염병과 쇠몽둥이로 공격하는 폭력시위, 끊이지 않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장마를 틈타 공장폐수를 유출시키고 소액벌금을 물면서 「이것이 경제적」이라고 계산하는 뻔뻔스러움 등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서 선진화와 거리가 먼 일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마치 별일 아닌 듯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 의식을 바껴나가야 한다. 시시비비를 가릴 능력을 길러야 한다. 참된 선진의 기쁨은 그 후에야 찾아올 것이다. (본보 논설위원)

서울대 동문에 고함

才勝德하지 않는 인격을 갖추자

林敬鎬(65년 行大院卒)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강조되어 왔다. 더우기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경이적인 경제성장의 실질적인 動因은 바로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성에 그 토대를 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서울대의 인재양성 기능과 우리 동문들의 사회 각계에서의 두드러진 활약상은 한결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어느 기관의 한 조사에 의하면, 金泳三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入閣한 장관 80명 중 63.8%인 51명이 서울대 출신

이며, 특히 15대 국회의원 2백 99명 중 55.5%인 1백66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政·官界를 비롯해 사회 각계의 요직에 서울대 출신들이 대거 자리하여 뛰어난 활약을 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평가만을 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눈총받는 서울대 출신

우선 각계 상위계층에의 서울대 출신의 편중은 국가전체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오랫동안 緣에 의한 갈등을 겪어온 국민들 눈에 학연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기주의로

비취질 우려도 적지 않다. 물론 인력활용에서 개인능력이 우선시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지나친 특정 집단의 집중은 타집단에 대한 기회의 박탈로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최근 韓經비즈니스가 사무관 급이상 행정부 공무원과 과장 급이상 대기업 임직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 5백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6%가 「서울대 집중현상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물적자원의 한계와

인적자원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사회 각계각층에 서울대 편중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 발휘와 이의 국가발전으로의 연계를 위해서 모든 서울대 동문들은 재능에만 의지한 자만심을 지양하고, 사회의 밑알이 될 수 있는 인격의 함양이 요청된다.

능력만큼 희생정신 필요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겸손의 禮를 갖추어야 한다. 겸손하지 않은 재능은 오히려 무능함보다 타인에게 더 큰 禍를 입힐지도 모른다. 따라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겸손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功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량을 갖추어야 한다. 일을 성공시키는 데는 반드시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나 功을 다룰때는 한발 물러나서 드러내지 않는 성숙이 필요하다.

셋째, 남을 돌아다 볼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진정한 경쟁은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섬」에 기반한 공존의 달성에 있다. 따라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타인에 대한 진지한 배려심을 가져야 한다.

「화합하는 시민, 거듭나는 대구」로 초일류도시 꿈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역상품 수출의 길 확장

④ 대구시청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文 憲甲 대구시장

저서 「보리밭과 나라경제」 「경제개혁이 나라를 살린다」 「함께 사는 경제」 등을 출간한 文憲甲(66년 行大院卒)시장은 해외출장을 비롯한 모든 출장에 일체의 수행비서없이 홀로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제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다. 67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 차관 등을 역임한 文동문은 86년 남북경제회담 수석대표로 활약했으며 제12, 13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美 예일대 객원교수, 계명대 초빙교수로도 활동했던 文동문은 보국훈장천수장, 청조근정훈장 등을 받았다.

李鎭茂정무부시장은 동력자원부 장관 비서관, 증권감독원 부원장, 대통령 경제비서관, 대한투자신탁 사장 등을 역임했다. 녹조근정훈장, 홍조근정훈장 등을 수상한 李동문은 등산과 서예에 일가견이 있으며, 저서 「증권경제론」 「신국제무역규범」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 등을 펴낸 경제 전문가이다.

이들을 선두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

는 대구광역시는 21세기 세계중심도시로서 경쟁력 있는 초일류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목표를 「화합하는 시민, 거듭나는 대구」로 정하고 경제도시 건설, 생활환경 향상, 봉사행정 실천 등을 위해 혼신을 다해왔다. 그 결과 제1회 한국지방자치단체 경영대상과 제1회 해외시장개척 대상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발로 뛰는 「경제살리기」

대구시는 95년 7월 「대구경제활성화기획단」을 구성해 경제발전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구체화 시켰다. 이에 따라 文시장은 프랑스, 독일 등 중유럽에 41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이끌고 현지활동을 전개, 지역특화 상품에 대한 5천7백91만불의 상담실적과 1천7만불의 높은 계약실적을 얻었다.

동남아에도 시장개척단을 파견, 해외관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자카르타, 마닐라 등에서도 1억2천5백52만5천불 상담에 4천6백76만5천불 수출계약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당초 예상 목표액의 3, 4배에 달하는 것으로 해외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중소기업이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었다.

대구시는 중소기업업체의 물량수급 조절기능과 수출대행, 시장개척 등을 위해 96년 1월 (주)대경직물상사를 설립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 효율적인 금융지원방안 등을 협의키 위해 60개 기관과 단체의 임원으로 구성된 「대구지역 금융협의회」를 발족했다.

한편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자본금 3백억 규모로 「대구신용보증조합」을 설립키로 하고 빠르면 오는 10월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대구 항공 국제화 추진

대구시는 대구항공의 국제공항화사업을 추진, 96년 2월 대구와 오사카간 국제선 정기취항을 개시했으며 대구에서 청도간, 대구에서 후쿠오카간의 주2회



文시장은 각계각층의 시민과 수시로 만나 여론을 수렴한다.

운항을 추진하는 한편 공항시설을 보완한 후에는 대구에서 동남아간의 운항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천지역에 3백4만평 규모의 첨단,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96년 3월 중앙정부에 지정 신청을 냈으며 부산, 경남지역의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펼치고 있다.

연쇄부도 직접 막아

마라톤 대책회의 끝에 부도직전의 주택업체를 구제한 일도 있다.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부도에 처해 있던 (주)삼산주택과 삼산종합건설을 대구시가 적극 중재해 보증회사인 한서주택과 태성주택 등 2개 회사가 각각 인수토록 함으로써 무려 1조원이 넘는 지역업체의 연쇄부도위험을 사전에 막았다.

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 성공한 사례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유례가 없었던 일로 1천5백16세대 입주예정자와 40여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막은 것은 물론 지역경제살리기에 대한 文시장의 의지와 노력이 돋보인 일화였다.

한편 대구시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시장이 시민과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이를 해소해주는 「직소민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장 직속으로 실무단 51명, 자문단 36명으로 구성된 「교통개선기획단」을 발족해 장, 단기 교통문제 해결방안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여 동문의 눈부신 활약

李在庸남구청장은 그동안 폐농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 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장, 대구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등을 맡아 활약해 왔다. 극단 「처용」 대표를 역임한 李동문은 95년 한국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대구연극협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등을 맡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대구시 공보관, 문화체육담당관, 교통관광국장 등을 역임한 鄭時植서구 부구청장은 공직자로서의 능력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문학에 관심이 있는 대구시 직원 40여명과 함께 「대구시문학회」를 창립, 회장을 맡아 매년 두차례 작품집을 발간하고 있는 鄭동문은 國弓에도 남다른 애정과 실력을 갖고 있으며 「영남문화동우회」 회원으로 우리나라 문화재를 연구하는데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약품분석과장으로 있는 鄭柱燮동문은 그동안 의약품 관련 연구 및 검정에 많은 기여를 해온 공로로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대구시 의회의원을 맡고 있는 琴秉泰동문은 77년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검 검사로 재직하다 85년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대구 민원실 법률상담변호사, KBS방송국 법률상담변호사 등으로 활약했던 琴동문은 대구경실련 사무국장,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맡아 활약해온 맹렬파이다. (志)

<대구광역시 동문 현황>

李鎭茂	정무부시장	65년 商大卒
李在庸	남구청장	80년 齒大卒
鄭時植	서구 부구청장	65년 農大卒
鄭柱燮	보건환경연구원 과장	64년 藥大卒
金燦圭	세정과 세외수입계장	71년 農大卒
琴秉泰	의회의원	76년 法大卒
鄭喜斗	문화예술회관	76년 大學院卒
郭大勲	의회 전문위원	78년 行大院入
俞英雅	수성구보건소	79년 齒大卒
鄭明堂	재난관리과장	80년 工大卒
李龍九	지하철본부 차량설비부장	82년 工大卒
劉承憲	총무과	84년 行大院卒
呂熙光	교통정책과장	85년 行大院卒
崔三龍	경제분석과 경제분석계장	87년 行大院卒
申慶堂	국제협력과 통상진흥계장	92년 行大院卒
李相吉	국제협력과 통상기획계장	93년 行大院卒
曹聖國	총무과	93년 行大院卒



세계 각국을 돌며 지역특화상품의 세일즈활동을 펼치고 있는 文시장.

동정

수상

▲李康熾(58년 法大卒·한국의대교수)=최근 교육개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金鎮福(58년 醫大卒·모교교수)=최근 위암수술분야의 연구와 임상실적을 높이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

▲金潤泰(60년 師大卒·서강대교수)=최근 교육개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李基俊(61년 工大卒·모교교수)=최근 교육개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李明賢(64년 文理大卒·모교교수)=최근 교육개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崔忠玉(75년 師大卒·경기대교수)=최근 교육개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받았다.
▲張慶祚(33기 AMP·웨스턴조선폰텔사장)=최근 영국 여행전문지인 「이그제큐티브 트레블」(ET)誌와 AT&T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1996 올해의 호텔」에서 비즈니스센터부문 세계최고 호텔상을 수상.

이동·선임

▲全學濟(51년 文理大卒·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8월 12일부터 17일까지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11차 국제 제올라이트학회」에서 차기 국제 제올라이트학회 이사에 피선.

▲李燦(51년 師大卒·前모교교수)=최근 龍王장학문화재단 이사장에 취임.

▲郭相萬(52년 農大卒·前컴퓨터교육연구센터본부장·교육개발원 자문교수)=최근 도서출판 교학사 편집위원에 취임.

▲金必漢(53년 工大卒·前전화번호부 편집부장)=최근 대마광업(주) 전무이사에 취임.

▲李星圭(56년 法大卒·신한투자금융부회장)=최근 신한투자금융 상임고문에 선임되었다.

▲元虎出(56년 商大卒·대구종합금융사장)=지난 27일 열린 주총에서 회장으로 피선.

▲李柄國(56년 商大卒·나산그룹고문)=최근 한길파이낸스 부회장에 취임.

▲金庸來(57년 法大卒·경희대산업정보대학원장)=지난 8월 27일 MBC 지방자치부문 객원해설위원에 위촉됨.

▲南世鎭(57년 音大卒·대구교대교수)=최근 대구 문예회관 신임 관장에 선임됐다.

▲崔根培(58년 法大卒·前외무부분부대사)=최근 駐라오스 대사에 임명됐다.

▲朴澤奎(59년 文理大卒·건국대교수)=최근 열린 사단법인 한국과학저술인협회 정총에서 회장에 취임.

▲林煥燮(59년 文理大卒·고려대교수)=최근 고려대학교 대학원장에 취임.

▲安賢源(60년 法大卒·우크라이나대사)=최근 폴란드 대사로 부임.

▲洪寅基(60년 法大卒·증권거래소이사장)=지난 8월 27일 MBC 경제부문 객원해설위원에 위촉됨.

▲安承詒(60년 商大卒·제일종합금융연구소회장)=최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에 피선.

▲全啓默(61년 工大卒·前포스코개발고문)=최근 포항제철 신설계열사인 (주)포스에너지 사장에 취임.

▲趙庚穆(61년 工大卒·前국회의원)=최근 한국케이블 TV협회 회장에 취임.

▲柳世熙(62년 文理大卒·한양대 사회과학대학장)=지난 8월 27일 MBC 국제정치부문 객원해설위원에 위촉됨.

▲金鍾貞(62년 法大卒·LG화학 부사장)=최근 LG그룹 KRTC 개발 대표이사에 취임.

▲安相英(63년 工大卒·前해운항만청장)=최근 부산매일신문사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金玉照(63년 法大卒·前한국언론연구원장)=8월 20일자로 동양화화이 추진 중인 인천지역 민영방송 추진사업단 사장에 취임.

▲閔丙文(63년 商大卒·동아일보논설위원실장)=최근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선임.

▲徐相祿(63년 商大卒·국민은행 경제연구소장)=최근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김.

▲李熙震(63년 法大卒·선경투자자문 상임고문)=최근 열린 선경투자자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피선.

▲李洪鎔(63년 商大卒·국민카드사장)=최근 국민카드사 사장에 연임됐다.

▲李秀休(63년 商大卒·前보험감독원장)=최근 은행감독원장에 임명됐다.

▲具滋玉(65년 農大卒·전남대교수)=최근 전남대학교 교무처장에 취임.

▲愼右宰(65년 文理大卒·前청와대공보비서관)=최근 한국언론연구원 원장에 취임.

▲李敏燮(65년 文理大卒·前국회의원)=최근 「강원 우리 꽃사랑 모임」 회장에 피선.

▲史富盛(65년 法大卒·前시애틀영사)=최근 브루나이 대사로 부임.

▲車濬吉(65년 法大卒·前외무부 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관)=최근 駐캄보디아 총영사에 임명됐다.

▲李恩珍(65년 師大卒·한국의대교수)=최근 한국외대 시험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취임.

▲朴京相(65년 商大卒·국세청차장)=최근 성업공사 사장에 취임.

▲金明培(66년 法大卒·前러시아공사)=최근 스리랑카대사에 임명됐다.

▲李廷甫(66년 商大卒·前신용보증기금이사장)=최근 보험감독원장에 임명됐다.

▲金振淳(67년 工大卒·충남대교수)=최근 대한공업교육학회 신임회장에 취임.

▲鄭信模(67년 文理大卒·서울신문전국부장)=최근 서울신문 논설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安敦姬(67년 醫大卒·국립의료원소아과장)=최근 개최된 한국여자의사회 정총에서 여자의사회 수석부회장에 선임.

▲金文煥(68년 文理大卒·모교

인문대 부설 예술문학연구소장)=지난 8월 27일 MBC 문화·예술부문 객원해설위원에 위촉됨.

▲金一燮(69년 商大卒·삼일회계법인대표)=최근 삼일파트너쉽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임.

▲盧成泰(69년 商大卒·제일경제연구소장)=지난 8월 27일 MBC 경제부문 객원해설위원에 위촉됨.

▲崔尙淳(69년 商大卒·한화그룹비서실 전무)=최근 한화유통 대표이사에 취임.

▲邊榮進(70년 工大卒·前도시개발공사 시설이사)=최근 서울시 주택국장으로 자리를 옮김.

▲朴煥求(70년 文理大卒·한국노동연구원장)=지난 8월 27일 MBC 노동부문 객원해설위원에 위촉됨.

▲金權朱(71년 行大院卒·교통부 감사과 감사담당관)=최근 건설교통부 수도권국장에 부임.

▲葛政雄(72년 商大卒·서울증권상무)=9월 1일자로 대림그룹의 계열사인 대림정보통신 대표이사 부사장에 취임.

▲金貳煥(73년 新大院卒·前아남그룹홍보담당전무)=최근 아남텔레콤 사장보좌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裴圭漢(74년 文理大卒·국민대학생처장)=최근 전국대학교학생처장협의회 회장에 피선됐다.

▲申成澈(75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교수)=지난 8월 27일 MBC 과학부문 객원해설위원에 위촉됨.

▲趙重煥(75년 文理大卒·국민대교수)=지난 8월 27일 MBC 국내정치부문 객원해설위원에 위촉됨.

▲李榮堧(75년 商大卒·한국홈쇼핑이사)=최근 한국홈쇼핑 대표이사에 취임.

▲安炳燦(75년 新大院卒·경원대교수·本報論說委員)=지난 8월 27일 MBC 언론부문 객원해설위원으

로 위촉됨.

▲李廷權(80년 醫大卒·한양대부속병원 가정의학과장)=지난 8월 27일 MBC 의학부문 객원해설위원에 위촉됨.

▲諸成鎬(81년 法大卒·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지난 8월 27일 MBC 남북·통일부문 객원해설위원에 위촉됨.

▲金星得(34기 AMP·前외무부분부대사)=최근 아랍에미리트 대사에 임명됐다.

▲李大鳳(36기 AMP·동아항공화물회장)=최근 모교 AMP(최고경영자과정) 라이온스클럽 창설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제2대 회장에 취임.

▲安光雨(37기 AMP·前신한은행상무)=최근 신한투자신탁 사장에 취임.

행사·출간

▲權相澈(35년 師大卒·안양전문대이사장)=최근 단국대 9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權彝赫(47년 醫大卒·학술원 회장)=최근 말레이시아 학술원과의 협력방안을 협의키 위해 팔라렘푸르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과학기술심포지엄에 참석.

▲金相廈(49년 文理大卒·대한상의회장·本會副會長)=최근 루이 펠리페 갈베스 駐韓 페루대사의 내방을 받고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환담했다.

▲南廣祐(50년 文理大卒·한국어문교육연구회장)=최근 창립27주년 기념 유공자 감사패 증정모임을 가졌다.

▲趙守鎬(47년 美大入·한국국제서법협회장)=최근 제주도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제주도 문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제주도 승격 50주년 기념 국제서예전」을 개최.

▲白樂琬(51년 醫大卒·인제대총장·本會副會長)=최근 인제대와 포항공대간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



▲金元燮(52년)工大卒·경원대 총장=최근 경원대학교 자매대학인 북경중의학대학 개교 40주년 기념 학술행사에 초청을 받아 출국. 총장은 그동안 실시해온 교수 교류의 성과를 평가하고 양교의 심도있는 협력방안을 협의하며 명예교수 추대 및 특별 강연도 할 예정이다.



▲金在中(53년)工大卒·선문대 공대학장=최근 브라질 정부 초청으로 「한국의 기술교육」에 대한 강연 및 세미나에 참석.



▲金在恩(54년)師大卒·이화여대 교수=오는 20일 이화여대 경영관 101호에서 정년퇴임식을 가질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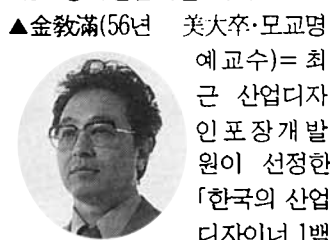


▲金相仁(55년)醫大卒·인천길병원원장=지난 20일 인천길병원 안(眼)센터(가칭)기공식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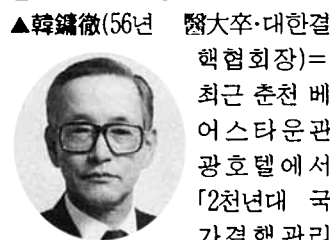
▲申榮均(55년)齒大卒·국회문화예술평론연구회장·국회의원·本會副會長=최근 63빌딩에서 「한국문화예

술의 현주소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



▲金敎滿(56년)美大卒·모교 명예교수=최근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선정한 「한국의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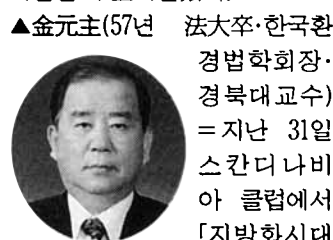
디자인」가운데 우리나라 산업디자인 1세대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1위에 선정됐다.



▲韓鏞徹(56년)醫大卒·대한결핵협회장=최근 춘천 베어스타운관광호텔에서 「2천년대 국가정책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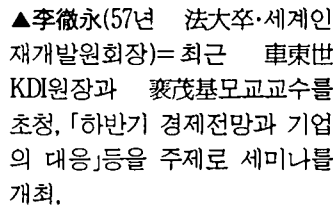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閔丙一(56년)齒大卒·모교 명예교수=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변의 학원에서 조선족 구순구개열환자들을 무료수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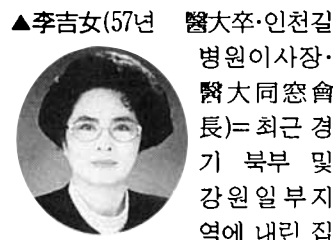


▲金元主(57년)法大卒·한국환경법학회·경북대교수=지난 31일 스칸디나비아 클럽에서 「지방화시대

에 있어서 환경법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



▲李徹永(57년)法大卒·세계인재개발원회장=최근 車東世 KDI원장과 裴茂基모교교수를 초청, 「하반기 경제전망과 기업의 대응」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李吉女(57년)醫大卒·인천길병원이사장·醫大同窓會長=최근 경기 북부 및 강원 일부지역에 내린 집

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이재민들과 피해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전직원의 성금으로 모금한 1천만원의 수재의연금을 KBS에 기탁.



▲金昌悅(58년)法大卒·방송위원회위원장·本報論說委員=최근 롯데호텔에서 중앙방송사장협의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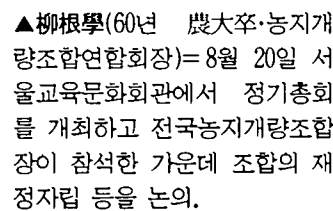
열고 우수프로그램지원 등 방송의 질적 향상에 대한 방안을 협의했다.



▲張永壽(59년)工大卒·한국건설업체연합회장·대우건설회장=8월 27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4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禹贊穆(59년)商大卒·조흥은행장=8월 23일 시범의류 도매센터인 동대문거평도매센터에 「거평프레아」 지점을 개설.



▲柳根學(60년)農大卒·농지개발조합연합회장=8월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국농지개발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의 재정자립 등을 논의.

▲高建(60년)文理大卒·명지

대총장·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최근 건국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푸른소리 환경기행」 행사를 가짐.



▲陳剛(60년)藥大卒·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지난 9월 의료보험관리공단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공단 대강당에서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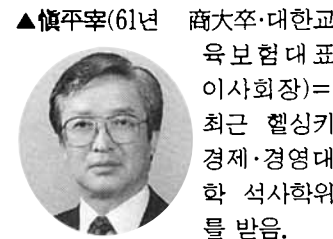
▲洪斗杓(61년)文理大卒·한국방송공사 사장·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상임대표·本會副會長=최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애플랜타 장애인올림픽 선수단을 위한 「격려의 밤」 행사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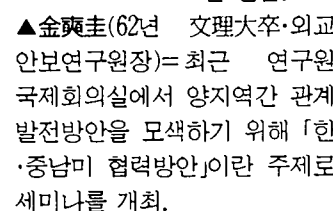


▲李敬子(61년)美大卒·한국미협 회원·화가=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현대아트갤러리에서 4번째

개인전을 가짐.



▲愼平宰(61년)商大卒·대한교육보험대표 이사회장=최근 헬싱키 경제·경영대학 석사학위를 받음.



▲金寬圭(62년)文理大卒·외교안보연구원장=최근 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양지역간 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중남미 협력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元喜喆(62년)法大卒·농협중앙회장=최근 농협중앙회 후정에서 창립 35주년 기념연을 개최.



▲李福男(63년)農大卒·농업경영관실 농업연구관=최근 아시아 생산성기구(APO) 주관으로 일본 동

경에서 개최된 농산물 유통체계에 관한 세미나에 초청되어 한국의 과실류·채소류 유통체계에 관한 논문을 발표.



▲李相河(63년)法大卒·한국프레스센터이사장=연세대 언론연구소와 공동으로 「제2차 서울 펠로십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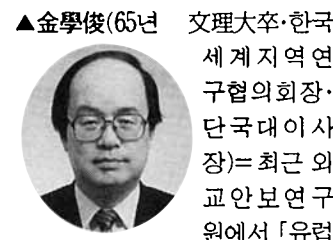
로그램」을 8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연세대 연희관에서 실시한다.

▲金政起(63년)法大卒·한국언론학회 회장=최근 「신문전쟁, 이래도 되는가」를 주제로 제1회 언론마당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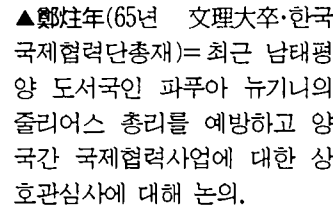
▲李泰衡(63년)商大卒·한국수자원공사 사장=최근 전국 초등학교 여자교장단을 대상으로 「물의 시대-과제와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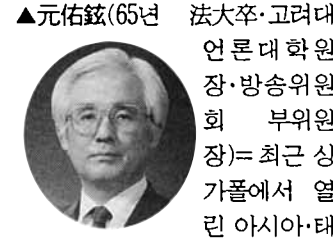


▲金學俊(65년)文理大卒·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회장·단국대 이사장=최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유럽

통합」등을 주제로 하계발표회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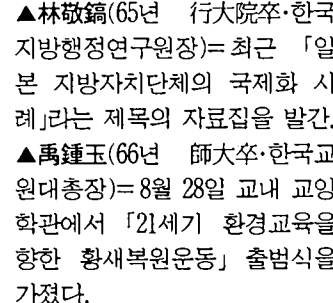


▲鄭柱年(65년)文理大卒·한국국제협력단총재=최근 남태평양 도서국인 파푸아 뉴기니의 줄리아스 총리를 예방하고 양국간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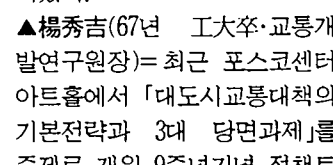


▲元佑鉉(65년)法大卒·고려대 언론대학원장·방송위원회 부위원장=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

평양 방송위원회에 참석, 논문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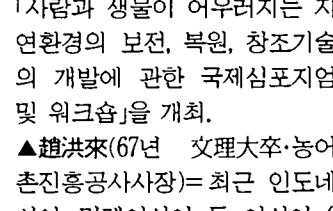
▲林敬鎬(65년)行大院卒·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최근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사례」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



▲禹鍾玉(66년)師大卒·한국교원대총장=8월 28일 교내 교양학관에서 「21세기 환경교육을 향한 황새복원운동」 출범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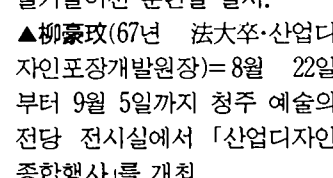
▲楊秀吉(67년)工大卒·교통개발연구원장=최근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대도시교통대책의 기본전략과 3대 당면과제」를

주제로 개원 9주년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



▲金貴坤(67년)農大卒·모교교수=최근 교육문화회관에서 「사람과 생물이 어우러지는 자연환경의 보전, 복원, 창조기술의 개발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개최.

▲趙洪來(67년)文理大卒·농어촌진흥공사이사장=최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6개국 농업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제4차 한·아시아 농업개발기술이전 훈련을 실시.



▲柳豪政(67년)法大卒·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장=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청주 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산업디자인 종합행사」를 개최.

▲李天杓(67년)商大卒·모교교수·통신개발연구원장=최근 세종문화회관 3층 대회의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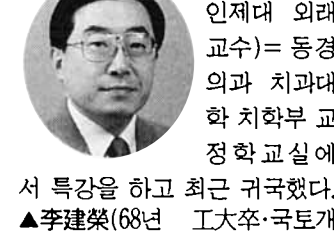
서 「통신사업 확대 경쟁 및 신규사업 도입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朴泳求(67년)商大卒·신라호텔대표이사=최근 회사 서비스 교육센터에서 열린 어린이 인터넷 탐험교

실에 참석, 어린이들을 격려.

▲劉英世(67년)齒大卒·치과의원장·고려대, 인제대 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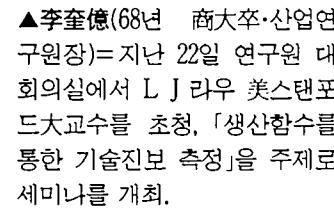


교수=동경 의과 치과대학 치학부 교정학교실에

서 특강을 하고 최근 귀국했다.

▲李建榮(68년)工大卒·국토개발연구원장=최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공청회를 개최.

▲鄭海舟(68년)法大卒·특허청장=최근 아라이 히사미츠 일본 특허청 장관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특허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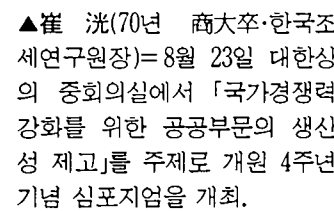


▲李奎億(68년)商大卒·산업연구원장=지난 2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L J 라우 머스토포드大교수를 초청, 「생산함수를 통한 기술진보 측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李錫采(68년)商大卒·前정보통신부장관·청와대경제수석=최근 경기 연천군 전국전화국

진상분국과 강화 철원전화국와수분국 등 수해지역 전화국을 방문, 침수된 통신시설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개통을 당부.

▲金鍾煥(69년)法大卒·대한투자신탁사장=최근 회사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아래 거래중인 대학교, 고등학교 등 2백54개 법인에 상반기 장학금 4억7천여만원을 전달.



▲崔洸(70년)商大卒·한국조세연구원장=8월 23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주제로 개원 4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

▲金潤澤(70년)經大院卒·대광산업 회장·양천장학회 회장=지난 21일 종로구 소재 양천장학회 사무소에서 대학원생 등 26명의 학생에게 총 1천1백1십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玄在賢(71년)法大卒·동양그룹회장·本會副會長=최근 하와이에서 열린 APEC경제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에 한국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金基道(72년)新大院卒·前국회의원=최근 14대 동료의원들과 함께 「14원회」를 구성하고 사무실을 개소.

명예기자로 모십니다

본보 명예기자로 활약할 동문을 모집합니다. 동문들의 활약상이나 미담 등 동창회 활동에 관한 기사 및 자료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서울대 동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명예기자로 위촉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서울대동창회 편집부 TEL:702-2233 FAX:703-0755

(주소: 강남구 역삼동 837-26
삼일프라자 1315호. 전화: 554-0126)

▲辛廷植(74년 商大卒·에너지
경제연구원장)=최근 태평양에
너지협력위원회 초청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에너지 전문
가회의와 APEC 에너지장관회
의에 참석.

▲李建鎔(75년 醫大卒·의료법
인 안양중앙
병원장)=오
는 9월 10일
부터 15일까
지 중국 산둥
성립병원과

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중국의
산둥성을 방문할 예정이며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미국
부인과내시경학회(AAGL) 참석
차 미국의 시카고를 방문할
예정.

▲朴明潤(76년 保大院卒·한국
파인트리클럽총재·한국청소년
자원봉사센터소장)=지난 26일
부터 29일까지 전북 고창군 청
원수련원에서 제31회 대학생
하계수련회를 개최.

▲林周煥(76년 行大院卒·순천
향대 교수·前
한국관광공
사본부장)=
지난 30일 충
남 공무원교
육원에서 관

광 관련 공무원의 관광인식 제
고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 개발전략」을 주제로
강의.

▲高秉浩(76년 環大院卒·한국
지역개발학회·청주대교수)=
최근 중앙대 안성캠퍼스에서
「21세기를 지향하는 수도권
발전과제와 지역균형 개발」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申鉉德(77년 師大卒·세계일
보생활부장)=최근 한국인으로
서는 최초로 몽골에서 박사학

위를 취득.

▲朴國洋(81년 醫大卒·인천 길
병원 심장센터 흉부외과 과장)
=지난 18일 국내에서는 처음
으로 무혈심장이식수술을 시
행, 성공을 거둬.

▲崔元榮(85년 大學院卒·시사
저널사회장·
本會副會長)
=최근 힐튼
호텔에서 스
즈키순이치
前도쿄지사
를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

▲尹龍熙(85년 環大院卒·전국
국립대 사회
과학대학장
협의회장)=
8월 23일 대
구 파크호텔
마드리홀에
서 정기총회를 개최.

▲朴寬用(18기 ACAD·국회의
원)=최근 부
산시 동래구
철산동 지구
당 사무실
에서 관내 새
마 을문고 회
장이 참석
한 가운데 도
서 2천 권을
기증.

▲申大鎭(20기 AMP·농수산물
유통공사사장)=최근 동국대
대학원 후기학위수여식에서
「조선후기 실학자의 국방사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朴相熙(26기 AMP·중소기업
중앙회장)=최근 서울지방경찰
청을 방문, 한총련 집회 해산과
정에서 부상을 입은 전투경찰
들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

▲金相賢(27기 ACAD·국회의
원)=최근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도입과
전망」을 주제로 제4차 금요환
경포럼을 개최.

(정리=崔恩熙기자)



朴椿浩 국제해양법재판소 초대재판관

“21세기 해양시대는 국제적 정치식견 요구”

「바다를 연구하려고 해변으
로 가서,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
고 모래알 하나를 만지고 있는
기분입니다. 제 개인의 영광이
기 이전에 우리나라 국력의 신
장과 외교 역량이 크게 발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일 임기 9년의 국
제해양법재판소 초대 재판관에
선출된 朴椿浩(59년 文理大卒)
前고려대교수를 만나 보았다.

— 해양법 연구 동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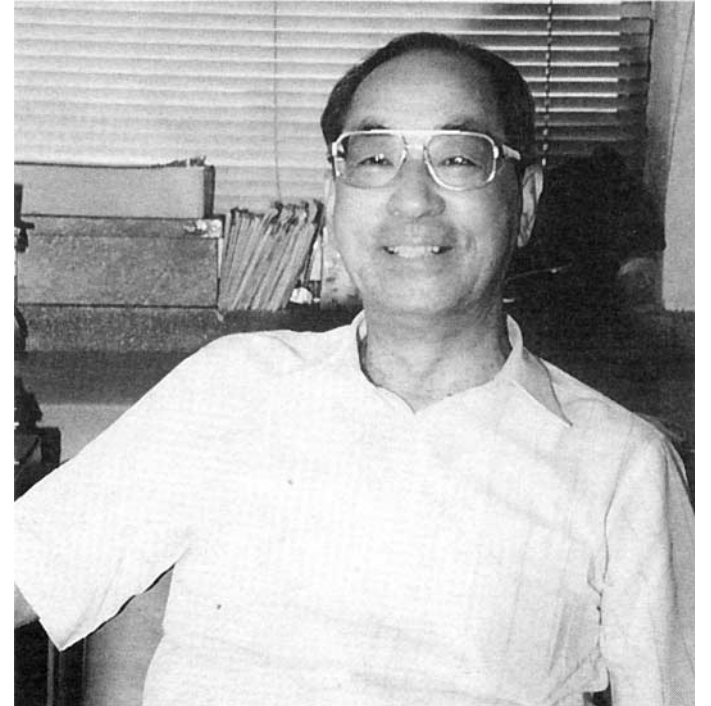
「재학시절 한·일 어업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보고 법문제가
기에 객관적으로 자세히 알아
보려고 했습니다. 졸업후 문교
부 영어과 편수관을 지내다가
해양국가인 영국의 에든버러대
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캐
나다 토론토 법대, 미국 하버드
법대, 하와이 법대 등에서 국제
해양법 연구의 기초를 다졌습
니다」

— 해양수산부 신설에 대한
견해는.

「해양 개발은 급진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해양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능률이 오르지 않은 것은 사실
입니다. 새로 신설된 해양수산
부는 우리나라의 기구로서 뿐
만 아니라 국제적인 시야에서
해양정책을 기획하고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진취적인 관심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자국이 관련된 해양분쟁
해결은.

「해양법재판소 제도상 재판
관이 자국의 사건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상대국의 재판관이
없을 경우는 그 사건에 한해
상대국에서 특별재판관을 추천
할 수 있습니다. 대륙붕 경계,
조업권, 심해 개발권, 배타적 경
제수역(EEZ) 설정 등 해양과
연관된 국가간의 각종 분쟁은
해양법재판소 관할이지만 최선
의 방법은 당사국끼리의 교섭
을 통한 해결입니다」

— 동문 및 후학들에게 한 말
씀.

「에디슨이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남보다 멀리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
다. 그것은 키가 커서가 아니라
이미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깨위에서 보았기 때문입니
다. 저도 국내외 여러 학자들의

실적을 기초로 해서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해양법이나 국제법을 하고
자 한다면 영어, 불어 등의 외
국어 기초가 필요하고 21세기
해양시대를 준비하며 국제정치
에 대한 식견도 필요하다고 보
니다. 또한 학문연구에 중요한
것은 건강이 기본이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
는 것과 같이 겸허한 마음가짐
도 필요합니다」

최근 국제환경노동문화원 원
장에 취임한 朴椿浩는 이제까
지 영어, 일어, 중국어로는 강의
를 해 보았지만 우리말로 북한
학생들에게 국제법을 강의할
시기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
다고 덧붙였다. (雙)



국민복지추진연합

孫鶴奎회장

지난 1월 29일 창립한 「국민복지추진연합」의 孫鶴奎(56년 文理大卒·동국대교수)회장을 만나 보았다.

— 창립배경은.

『국민복지추진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정부의 책임회피적 복지정책에 대해 각 사회복지 관련 학회와 여러 시민단체의 회원들이 연합해 정부가 경제력에 상응하는 복지수준을 유지하도록 비판, 압력을 가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해 조직된 시민운동단체입니다. 95년말경, 정부가 표방한 이른바 「삶의 질의 세계화」라는 구상이 다분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를 민간과 시장기능으로 전가시키고 있어 이를 비판, 시정하기 위해 창립했습니다』

— 그동안의 활동은.

『창립과 동시에 「선진복지한국을 위한 국민복지선언」을 통해 국민복지 10대 과제를 발표



의 사회운동가들의 힘과 정열로 쟁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결코 구제사업이 아니며 소외를 저지하고 사회통합을 창조하는 중요한 영역이자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목표입니다. 따라서 복지연합은 실제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때까지 다양한 사회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참여하고 있는 동문과 가입절차는.

『누구나 환영하며 모든 활동에 참여해 주시

“온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땀입니다”

했습니다. 이 중에는 ▲복지투자수준의 GNP 10% 확보 ▲생계, 주거, 교육, 근로 등의 5대 기초보장의 확립 ▲노인, 장애인 및 아동 등의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사회성 및 고급소비생활품에 대한 복지세 부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복지정책, 이대로 좋은가」와 「저소득층의 주거빈곤과 주거권—Habitat II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두차례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청와대 사회복지수석비서관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문화복지」 「생산복지」 및 「한국형 복지」의 개념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 향후 계획은.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회복지란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계획의 일환으로 그리고 공동체 사회건설의 수단으로 등장한 정책이었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종교단체 등

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은 경제력과 복지수준의 불균형입니다. 절대빈곤층과 자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참상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成圭鐸(前연세대교수), 愼燮重(부산대교수)동문이 고문을 맡고 있고 金隆一(카톨릭대교수), 俞在賢(경실련 사무총장), 曹興植(모교교수)동문 등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사람들은 서울대 출신들이 그동안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칭찬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無哲學과 경거망동을 탓하기도 합니다. 권력자의 주변에서 지조없는 심부름꾼으로 안주하지 말고 사회를 개선하고 연대감을 높이기 위한 사회운동에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전화 260-3258) (志)

「관악홀 의자 실명제」에 적극 동참을!

본회는 동문들에게 각 10만원씩을 기증받아 고급의자를 제작, 의자 뒷부분에 출연자의 성명과 출신대학을 명기하는 「관악홀 의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백석중 1백석이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동창회관이 서울대인의 진정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도움주실 동문은 온라인 입금후 전화연락 바랍니다.

온라인: 조흥은행

397-03-002804(김재순)

전화: 702-2233



한국정치의 회고와 전망

金雲泰명예교수



오늘 우리는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류문명사는 현대에 들어와 18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2백년간 기술변동의 파동을 치르면서 그 변화의 속도는 가속이 붙어 소위 「J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가파른 상향선으로 선화하여 곧 지식과 정보가 폭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이른바 정보화, 국제화, 지방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내 우 위환의 근 현대사

현대사회의 일반적 변화의 추세가 그러하지만 우리의 지난 근현대사의 격변상황을 돌아켜보면 일찍이 14세기 말부터 2세기간 한국적 근세유교관료국가의 발전을 보았으나 임란의 국난을 겪은 후에는 한때 실학운동의 중흥기를 거치면서 변질과정에 들어갔다. 마침내 19세기 중반기의 西勢東漸을 배경으로 한말 30년간의 개화기를 맞이하고 근대화가 촉진됐다.

그러나 이 19세기말, 20세기 초의 격동기에 우리 민족이 분열되고 이 틈을 타서 제국주의 열강이 우리 국토에서 각축하는 가운데 일제는 淸日, 露日 양대전에서의 승전을 기회로 한반도에서 독점적 지배권을 장악했다.

그로 인해서 40년간의 식민지배를 거치면서 우리의 근대화를 왜곡시키고 잔인한 수탈과 민족 말살정책을 자행한 것이다.

정치개혁은 기본 조건

제2차대전 후, 광복이 되자 미·소 군정하에서 분단체제가 고정화되면서 혼란 끝에 한국전쟁에 휩쓸렸으며 그 전쟁의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4·19, 5·16으로 이어지는 혁명과 정변의 격변을 경험했다. 뒤이어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변동을 겪기는 했으나 10·26을 계기로 정치적 공백의 와중에서 12·12, 5·17과 5·18 및 6·29 등으로 점철된 헌정의 시련을 거친 후, 88올림픽도 치르고 오랜만에 문민정부시대가 열리게 됐다. 새 정부에서 제반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1세기를 몇 년 앞두고 이에 대비하여 현실을 반성하고 앞으로 과제들을 구상해본다.

고래로 한국의 국운의 성쇠와 근대화의 명암이 정치의 성패에 따라 좌우됐으며, 오늘의 한국 현실에 있어서도 그 예외는 아니다. 21세기를 바로 앞에 두고 한국선진화 과제로서 정치적 개혁, 경제적 산업화와 국제화, 사회적 평등과 국민복지증진, 근대통일민족국

가의 완수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이 가운데 정치적 개혁은 여타 분야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초적 조건이 된다고 하겠다.

우선 경제적으로 21세기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거의 완전고용이 이룩되는 사회보장을 성취하는 것은 정치가 담당할 과제이며, 사회적으로 국민복지를 증진해 전체 국민의 중산계층화를 실현하거나 또는 미완성의 근대민족통일국가를 단계적으로 완수하는데도 정치의 몫은 지대한 것이라 하겠다.

병폐적 결이 우선돼야

그러면 한국정치는 어떠한 현상이며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 우선 한국정치의 병리는 미래의 철학과 비전이 없고 현실정치의 명분이나 정책이 근시안적 政派간의 이해나 지역할거주의, 특정 정치인의 특권화, 천민주의적 속물근성의 권력정치 등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정치의 과제로서 첫째, 세계사 내지는 민족사의 전개과정에서 좌표를 정하고 국가와 민족공동체의 당면 기본 전략을 세워 운영할 것이며, 오늘의 우리 정치상황에서도 안으로는 지역이 기주의나 패권주의를 떠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밖으로는 자주와 독립을 고양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그 활력소로서 발양한 민족의식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둘째, 정부와 정당의 무책임하고 비민주적 권력의 집중을 배제하여 정치참여와 권력순환을 활성화하고 지방분권화와 정당내 민주화의 내실을 충족하는 일이다.

셋째, 정통적 정치의 윤리성을 감안해 일상정치과정에서 공정과 질서 및 경합적 절차를 존중하고 민족공동체의 복리증진에 헌신하는 품위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를 구현하는 일이다.



申東憲동문

故 申東雨화백 등 형제들 그림에 신명 바쳐

「홍길동」「호피와 차돌바위」등 장편만화영화로 유명해

함북 회령이 고향인 7형제중 4형제만 월남했고, 그 4형제가 모두 모교와 인연을 맺은 가족이 있다. 만화가로 더 유명한 申東憲(49년 工大入·신동헌프로덕션 대표)일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재작년 세상을 달리던 故 申東雨화백은 바로 申동문의 막내동생이다.

7형제중 삼남인 故 申東憲(47년 醫大卒), 5남 申東憲, 6남 申東濟(50년 工大入), 7남 故 申東雨(55년 美大入)동문만이 월남하여 이산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분야에서 입지를 굳힌 형제들.

월남 후, 장남 역할까지 해야했던 故 申東憲동문은 일본 교토대학 재학중 해방을 맞아 모교 의대에 편입해 학업을 마쳤다. 모교 대학원을 마치고 모교에 남아 연구를 계속하며 생리학회장을 지냈을 정도로 기초의학연구에 힘썼으며 모교 의대학장도 역임했다. 10년전 인제대학장으로 있던 중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달리던 형에 대해 申東憲동문은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만화 위해 진로 바꾸기도

故 申東雨동문은 모교 미대에서 수학했고 만화가로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申東憲동문이 우리나라 만화의 초창기를 개척했다면 故 申東雨동문은 만화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당시 모교는 예과를 마친후에 전공을 선택해 본과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申東憲동문은 물리학에 뜻을 두었다. 申동문은 예과 理과 甲류과정 2년을 마치고 공대 건축학과에 입학했으나 그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공대 재학중에도 아르바이트로 미군초상화를 그리



앞줄 가운데 申東憲동문부부, 좌로부터 鄭慧模·申仁燮차남부부, 삼남 申洋燮동문, 申景燮·全麗景장남부부.

는 등 붓을 놓지 않았다. 2학년 재학중 6·25를 맞았고 전쟁후에는 복교를 하지 않고 만화를 전문으로 삼았다. 장편만화영화 「홍길동」「호피와 차돌바위」등이 申동문의 대표작이다.

그런 형의 영향을 받았는지 6남 申東濟동문도 공대 건축학과에 입학했으나 진로를 바꿔 만화와 인연을 맺었다. 현재 申동문은 우리나라에서도 수입해 TV로 방영했던 「독수리 5형제」의 제작사 「다쓰노코」에서 영문번역사로 활약하고 있다.

회령 최고의 대학생 가족

『우리 고향이 함북 회령인데 인구 삼백명 정도 되는 작은 동리였지. 한두명

대학생이 있을까 말까한 동네에서 우리 일가만 해도 대학생 수가 회령 전체보다 많았어요』

한양대 부총장 吳明鎬(56년 文理大卒)동문과 吳敬愛(50년 藥大卒·삼성당약국)동문은 申東憲동문의 외사촌동생이다. 申東憲동문의 두 처남도 동문인데 큰 처남 李昇雨(62년 師大卒)동문은 대학교 어린이방송국 사장이고, 작은 처남 李盛雨(73년 農大卒)동문은 진주금남고등학교 교무주임으로 재직중이다. 李昇雨동문의 부인 鄭珍廉(62년 師大卒)동문 또한 서울대가족이다.

2세들도 탄탄한 만화제작자

申東憲동문의 아들 3형제 중 장남 申

景燮(81년 美大卒), 삼남 申洋燮(86년 社會大卒)동문도 서울대인이다. 申景燮동문은 연세대학교 공대에 입학했었으나 진로를 바꿔 모교 미대를 졸업하고 모교 강단에 서기도 했다. 현재는 미국 워너브라더스社 장편만화영화 제작팀에서 일하고 있다. 맏며느리 全麗慶(80년 美大卒)동문도 빼놓을 수 없는 서울대가족이다.

申洋燮동문은 모교 졸업후 독일 쾰른대에서 연극학 공부를 10년동안 하고 현재는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차남 申仁燮씨도 미술을 전공하고 현재 제일기획 부국장으로 있으니 이 가족만큼 만화나 영화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가족도 드물 것이다.

가족소개를 해준 申東憲동문은 클래식에 조예가 깊은 몇 안되는 미술가로도 유명하다. 소장하고 있는 클래식 음반이 5천장에 이르고 88년부터는 축음기애호가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90년부터 책도 집필해 「지그재그 변주곡」, 94년 「재미있는 클래식 길라잡이」, 95년 「음악가를 알면 클래식이 들린다」를 펴내기도 했다. 책의 일러스트도 申동문이 직접 했다.

지금도 만화사에 길이 남을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가족들. 申東憲가족 앞에 붙는 수식어에서 만화는 앞으로도 빠지지 않을 것 같다. (熙)

“서울대가족을 찾습니다”

3, 4대에 걸쳐 동문이 배출됐거나 일가친척중 동문이 많이 계신 가족, 자랑거리가 있는 가족을 회보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게재를 원하시거나 추천하실 분은 편집부로 연락주시요.

전화: 702-2233 팩스: 703-0755

이
간
강
변

辛大用(57년 農大卒)
한국차문화연구회장



高麗五行茶禮시연후. (가운데 辛동문)

30년간 茶마시며 심신다져

필자는 30여년간 신비로운 차를 마시고 있다. 차란 차나무 잎을 채취해 만든 녹차, 홍차, 烏龍茶 등을 뜻하며, 옛부터 차나무는 신령스런 나무라 믿어 왔다. 차는 3백여종의 성분과 70여가지 향을 지니고 있는 지상 최고의 음료이다.

애독작용 특이 뛰어나

차는 쓰고, 떫고, 시고, 짜고, 단五味를 모두 갖추고 있어 차를 마시면 오장육부에 고루 작용해 신비로운 힘을 내는 「만병의 약」이라고 중국의 本草遺는 밝히고 있다. 선인들이 말씀하기를 「이 신비로운 차를 예를 갖추어 5년간 마시면 신선의 경지에 들어선다」고 했으니 차의 효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특히 차를 마시면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차잎속에 비타민 C, E, D, 연초산 및 요오드가 풍부히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잎속의 페놀물질은 방사성 물질을 흡수할 수 있고 심지어 동물의 골수에 이미 들어간 방사성 물질도 흡수, 제거할 수 있어 「原子시대의 음료」라 불리고 있다.

차는 아침 식전이나 공복에 마

시는 것을 삼가하고 끓는 차나 냉차는 피하는 것이 좋다. 차를 우린 60℃ 전후의 것이 가장 몸에 좋다고 한다. 차는 우려서 3, 4분내로 마셔야 하고 3, 4회 반복 우려서 마시면 차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하루에 4, 5잔이 적당하며 저녁에는 피하고 연한 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寒齋 李 穆(1471~98)선생은 茶賦를 지어 차의 五功, 六德, 七效能을 찬미하며 「차를 칭송하지 않으면 현인을 버려둠과 같기 때문에 의무로서 쓰노라」하였다.

하루 4, 5잔이 적당해

필자는 수십년간 신비로운 차와 함께 살고 있다. 저녁에 穀茶를 드는 습관이 있어 아침 일찍 식전에 두 서너잔의 녹차를 마시고 있으나 아직 몸에 이상을 느끼지 않고 있다. 겸하여 1시간 정도 아침 산책과 운동을 하는데 지방 나들이나 해외여행중에도 계속하고 있다.

동물은 산과 들과 바다에서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활동이 곧 운동이요, 생명이요, 生이다. 사람은 활동하는 것 외에 마시는 것과 적당한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모임



생물교육학과동창회

창학50년사 문집발간 착착 진행

생물교육과동창회(회장 金在浩)는 모교의 역사와 같은 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학과동창회로 올해 46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1천2백여명의 회원들 대부분이 교직에 몸담고 있어 회원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남다르다.

생물교육과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행사를 마련하기로 한 회원들은 11월의 모교 방문 행사와 전시회 준비 등으로 여념이 없다. 그 중 50년사 편찬 준비위원장을 맡은 張楠基(60년卒·모교교수)동문은 더운 여름에 휴가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느라 땀을 쏟고 있다.

전시회·세미나도 계획

50년사는 생물교육과 발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할 1부와 회원들의 추억담 등을 게재하는 2부로 나누어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同會는 관련사진이나 교재로 쓰이던 책, 논문, 재학시절의 기록이 담긴 글 등을 모으고 있다. (동창회 886-2117) 그동안 동창회보를 무료로 제작해 주었던 林弘造(64년卒·금성교과서사장)동문이 1천만원 가량의 비용을 일체 받지 않고 제작해주기로 했다.

또한 재학시절 사용했던 책, 실험도구, 실험복 등도 모교 생물교육과 강의실 복도에 전시하고 학술세미나도 갖는다. 재학중인 후배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하고, 회원들과 재학생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범대학이 가장 먼저 남녀공학이 되었던 까닭에 부부회원도 여럿 있다. 미국 테네시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田光雨(57년卒)·金明實(57년卒)부부, 남편 田동문은 생체유전자 이식의 대가로 주목받고 있다.

후배에게 장학금 지급도

韓文熙(57년卒·前유전공학연구소)동문은 88서울올림픽 개최시 도핑테스트단장을 맡기도 했었고, 작년까지 모교교수로 재직했던 金俊鎬(60년卒)동문은 식물과 환경생태학의 선두주자로서 얼마전에는 환경녹지조사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다녀오기도 했다.

50주년 행사를 하게 되어 회원들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건물도 제대로 없이 타 단과대학건물 1층을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후배들이 교직을 선택한데 대한 자괴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매년 준비하면서도 이런 점을 해결하기에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울뿐이라는 회원들.

그러나 회원들의 학창시절도 그리 넉넉하진 않았다. 회원들 반수 이상이 가정교사로 학비를 조달했으며, 어쩌다 데이트를 하더라도 짜장면에 차 한 잔이면 행복했던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후배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맘껏 공부할 수 있기를 더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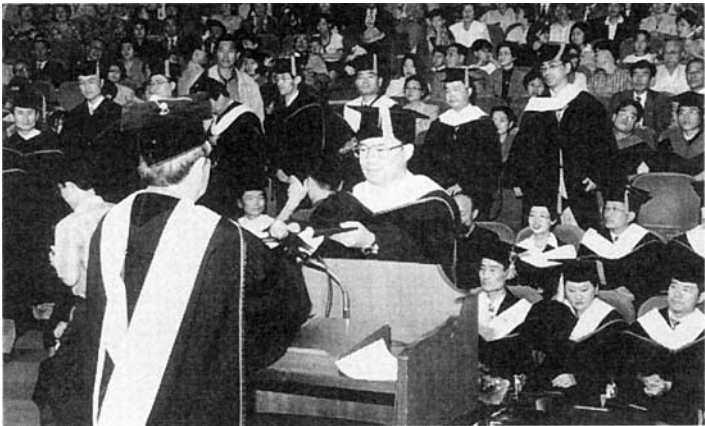


창학 50년 행사 준비이사회.(오른쪽에서 두번째 金在浩회장)

모교소식

9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

총 1천2백14명 졸업



지난 8월 29일 成百仁인문대학장이 학위증을 수여했다.

9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말 각 단과대학(원)별로 거행됐다.

이날 학위수여자는 총 1천2

백14명으로 학사 5백70명, 석사 3백33명, 박사 3백11명이다. (명단 24면 게재)

金完鎭교수 등 18명 정년퇴임

지난 8월 31일 교수 18명의 정년퇴임식이 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번에 퇴임한 교수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完鎭교수(국어국문학), 趙炳泰교수(영어영문학), 崔完植교수(중어중문학), 金彩潤교수(사회학), 呂井東교수(외교학), 金宗炫교수(경제학), 河斗鳳교수(분자생물학), 王仁權교수(농경제학), 金泰교수(서양학), 徐元宇교수(공법학), 朴秉濠교수(사법학), 金恩典교수(국어교육), 趙潤相교수(제약학), 金惠旻교수(성악), 明好鎭교수(의학), 李漢九교수(의학), 金鍾煥

교수(의학), 李英煥교수(보건학)(프로필 다음호에 게재)

「홈페이지」새로 단장

모교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의 주소는 「www.snu.ac.kr」이며 그 내용은 모교 소식, 학교 소개, 학사안내, 게시판, 코스웨어, 생활 정보 등이다.

모교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계속 보강해 내용을 충실히 할 방침이다.

97년도 신입생 복수전공 가능

의·약·치·수의대는 제외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졸업할 때 의·약·치·수의대를 제외한 타 단과대학의 전공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입학한 신입생은 소속 단과대 내에서의 복수전공이 허용된다.

모교가 지난 8월 2일 확정된 「복수전공 이수규정」에 따르면 농생대 농학과 올해 입학생의 경우 산림자원학, 농경제학, 농화학 등 소속 단과대 내의 다른 학과를 복수로 전공할 수 있고 내년도 이후 입학생은 의

·약·치·수의대를 제외한 법학, 경제학 등 다른 단과대의 어떤 학과도 제한없이 전공할 수 있게 된다.

복수전공 이수자의 선발인원 및 기준, 이수방법 등은 단과대 별로 정하기로 했다.

천연물과학연구동 기공

지난 8월 5일 鮮于仲皓총장, 李純炯의대학장, 張日武천연물

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건캠퍼스에서 천연물과학 특수연구동 기공식이 있었다.

지상 4층 지하 1층에 연면적 7백90여평 규모로 건립되는 이 연구동은 26억5천만원의 국고 지원 예산으로 건축, 오는 97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 연구동에는 도서관 및 서고, 정밀기기분석실, 컴퓨터자료실, 교수연구실, 세미나실, 중앙전산실, 자료공실, 표본실, 문헌자료실, 영상실, 실험실 등 천연물 과학의 기반 기술 확보에 필요한 시설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變)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 안내

행 사	일 시	장 소	내 용
개막연주회	96. 10. 7. (월)	문화관 대극장	50주년 축제의 개막을 선언하고 기념하는 연주회. 「가야금 협주곡」, 「대학축전서곡」 등을 연주.
전통음악의 밤	96. 10. 8. (화)	문화관 대극장	국립국악원 연주단, 무용단, 민족합주단과 유명 국악인들이 노래와 춤을 선보임.
교수실내악단 연주회	96. 10. 9. (수)	문화관 대극장	음대 교수로 구성된 실내악단이 파헬렐의 「캐논」, 비발디의 「사계」 중 가을 및 겨울 등을 연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의 밤	96. 10. 10. (목)	문화관 대극장	서울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의대 및 치대 오케스트라가 베르디의 「아이다」 중 개선행진곡, 차이코프스키의 「이태리 기상곡」 등 클래식을 연주.
개교 50주년 기념식	96. 10. 15. (화)	문화관 대극장	「자랑스런 서울대인」선정 발표, 명예졸업장 수여, 기념공연, 축시 낭독 등의 기념식을 거행.
기념우표발행	96. 10. 15. (화)	정보통신부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정보통신부가 기념우표를 발행.
해외동문 모교 방문의 날	96. 10. 14. (월) ~ 10. 16. (수)	문화관 대극장	모교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해외동문들을 초청, 모교의 발전상을 알리고 개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
교사관련 특별전	96. 10. 14. (월) ~ 10. 30. (수)	박물관	모교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모교 관련 교사자료를 전시.
서울대가족 친목등산대회	96. 10. 27. (일)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안양 농생대 수목원	매년 10월 넷째주 일요일에 서울대 가족들이 모교를 찾아 관악의 가을 정취를 맞보는 「동창의 날」행사.



8월호를 읽고

동문을 하나로

이어주는 회보



내가 모교에 입학했던 52년에는 종합대학교로서의 서울대학교라기보다는 단과대학들을 모자이크해 놓은 조합식 종합대학교의 인상이 깊은 시기였다.

출신 단과대학 별로는 나름대로 모임이 있었지만 서울대학교라는 거함의 위용은 나타내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동창회보가 본격적으로 발행되면서 사정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개교 50주년이라는 일천한 역사속에서도 모교는 세계 굴지의 명문 대학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문 중의 명문으로 성장했는데 서울대인을 하나로 묶는 매체로서의 구실을 완수한 동창회보에 깊은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보낸다. 崔泳一(56년 獸醫大卒) 국제와이즈맨 한국지구협회 사무처장

젊은 층도 많이

소개해주길



우리 사회를 흔히 「연고」의 사회라고 한다. 혈연, 지연, 학연 등 3대 연고에다 입사 동기, 입대 동기 등 각종 연고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그러나 꼭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사람간의 교류와 우의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인생의 깊이를 맛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창회에서는 아직 젊은 층에 속하는 동문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회보에서도 젊은 세대의 이야기가 좀더 많이 취재, 발굴, 게재됐으면 한다. 세대간의 단절을 넘어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것도 동창회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蔡潤(85년 社會大卒) 버리사



캠퍼스에 대한 유감

뜨락은 한 가정의 정서가 존재하는 곳이다. 최초의 장편소설인 「한국인」을 현대문학에 연재한 것이 성공을 거둬 그로 인해 받은 인세로 대지를 장만했다. 조선일보 연재 당시 화제를 모았던 「세화의 성」이 출판되어 베스트 셀러가 되자 그 인세로 사농은 대지 위에 프랑스식 양옥을 지었다.

그 집 정원에서 내다보이던 북한산의 한 자락과 아름다운 조망은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대의 삶에 많은 추억거리를 남겨놓았다.

후배여성작가 드물어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 불문과가 지방분교인 반월에 생기자 나는 부득이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했다. 강의가 없는 날 꼬박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나는 사면이 벽뿐인 아파트의 삭막함을 견디기 어려웠다. 그래서 우면산을 뒤와 옆에 끼고 있고 앞에는 대모산이 보이는 현재의 빌라로 이사를 왔고 쾌적한 느낌으로 집필하면서 살고 있다. 물론 빌라에는 뜨락이 있고 클로버가 극성인 잔디와 조경을 갖추고 있다.

동송동의 낭만 그림자

나는 이따금 「여성문인의 등단이 활발한 요새 왜 서울대학에서 나의 후배작가가 눈에 띄게 나오지 않을까」의아하게 생각한다. 유안진씨, 최문희씨, 유영수씨 등이 있지만 문리과대학의 후신인 인문대학의 외국어과나 국문과 출신의 여성작가가 없는 것이 유감스럽다.

서울대학은 아카데미시즘이 강해 평



孫章純(58년 文理大卒) 「리벨름」 발행인

론가는 많아도 예술성을 더 요하는 작가 배출은 비교적 드문 편이다. 그래도 동송동 시절에는 마로니에 나무와 라일락 향기가 그득했던 대학의 뜨락이 문학의 산실이 되어준 듯 「서울대학교의 르네상스 시절」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 연배가 비슷한 나의 선후배 가운데서 많은 문인이 배출되었다.

신림동에 있는 모교의 캠퍼스에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단과대학을 한데 모아놓아 거대한 대학의 면모를 엿볼 수는 있었지만 어디에도 정서적인 아담한 분위기를 느낄 수는 없었다. 외국의 많은 대학을 가보았지만 분산되어 있어 자기나름의 정서가 깃들어있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직장여성의 행복찾기

눈이 시리도록 맑고 푸른 하늘, 물고기의 움직임이 모두 보이는 투명하고도 빨려들어갈 듯한 설악의 계곡을 보며 새삼스레 자연의 신비로움과 함께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된다.

직장일이 즐거워 정말 일하고 싶어하던 동료가 남편 따라 외국에 가려고 사직을 한다.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좀더 중시한 것이다.

두마리 토끼 잡느라 고달퍼

그 동료가 우리와 일을 함께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정말 여유없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주변의 동료가 마음을 다치는지, 열등감에 빠져 좌절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못하고 업무성과만 중시하며 살아왔다. 그러한 우리에게 그 동료는 잠시 여유를 갖고 뒤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동료들, 주변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동료는 서로 좋은 점을 찾아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풍토 마련에 힘써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있기를 더 원했는지 모른다.

같은 직종, 아니 여성을 뺀 모든 남성

들은 거의 대부분 「잘 생각했지, 3년을 어떻게 떨어졌었나」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하며 한편 섭섭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을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남아 있는 우리들은 가정보다 일이 우선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된다.

자신에게 적극 투자하자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려면 또다른 여자의 도움없이 불가능하다.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아니면 자매,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탁아소, 어린이집이 있기는 하나 턱없이 부족하고 그 장소까지 이동하기 위해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직장 내에서 집안일, 아기를 걱정하는 여성을 보면 주변에서는 「그렇게 걱정되면 그만두지」하고, 반대로 남성이 똑같은 걱정을 하면 「참 자상하고 가정적이시네요」하는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속에서 갈등을 겪으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변화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구



金福子(76년 看護大卒)

서울중앙병원 간호부장

조적인 불평등과 갈등속에서 효율적인 시간관리와 갈등관리로 행복을 찾는 직장 여성들에게 감사드리며 일과 생활에 열정을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

삶의 질을 보다 더 중시할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하며, 즐거움을 아는 여성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답답하게 여겨도 가족을 위해 직접 장을 담그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 또 누가 뭐라고 해도 된장 따위는 슈퍼에서 사다먹고 남은 시간에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긍심을 느끼며, 현명한 욕심은 가지되, 맑은 우리의 의식을 지키면서 삶에 지치지 말고 혼란 없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은 매순간 안타까움을 주지만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문화
단신

新刊

멀티미디어

시대를 해부한다

—李海旭 著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차관, 한국통신 사장을 역임한 李海旭(63년 商大卒·한국통신 이사장)동문이

과거경험과 대학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멀티미디어와 정보슈퍼하이웨이에 대한 내용을 깊이있게 다루고 있다.

세계 각국이 멀티미디어사회의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첨단산업을 광범위하게 설명하여 정보전쟁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사刊·값8,500원)

기본에서

세계기업이 나온다

—金光俊 著



20여년간 기업 일선에서 활동해온 金光俊(69년 法大卒·신경영연구소장)동문이 기업

의 실무에서 보완되어야 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서류양식 작성 9대 원리」, 「실무 양식 사례 18개에 대한 해설」, 「다면 균형의 원리」 등 최고 경영자에서 일선 실무자

까지 실천해야 할 것들을 모아 놓았다. (무당미디어刊·값7,000원)

전자화폐와

결제시스템

—卓勝鎬 著



한국은행 금융결제부 부장으로 재직중인 卓勝鎬(72년 商大卒)동문이 전자정보혁명 시대의 지급

결제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 처음으로 시도한 연구서.

미래의 화폐는 어떻게 바뀌며 이에 따라 새롭게 형성될 결제시스템과 통화정책 등 금융전문인은 물론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더뱅크사刊·값7,000원)

公演

朴蘭姬파이프오르간

귀국독주회

—10월 4일 뱃불선교센터

명동성당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며 계명대에 출강하고 있는 朴蘭姬(88년 音大卒)동문이 귀국독주회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는 멘델스존, 북스테후데, 힌데미트, 바흐, 레거의 작품을 연주한다.

(정리=安興燮기자)



姜銓愉나무종합병원 원장

정이품송 등 국보급 살려내

「나만큼 대한민국을 구석 구석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나만큼 죽은 나무를 많이 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무처럼 배짱좋은 환자도 없다. 아무리 다급해도 제 발로 찾아오는 법이 없으니 姜銓愉(61년 農大卒)동문은 왕진을 다니느라 늘 떠돌이 신세다.

언제나 떠돌이 신세

30년이 넘게 나무와 지내다보니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도 든다. 나무를 치료하려 가면 처음엔 하늘을 찌르는 키와 덩치에 주눅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두세번 만나다 보면 친근함이랄까, 어떤 교류를 느끼게 된다. 살려는 힘은 또 얼마나 강한지, 더우나 추우나 버티고 견디는 것을 보면 신통하기 그지없다.

나무와 인연을 맺은 것은 임업연구원에 입사하면서 부터이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나무 치료를 하다보니 조경수처럼 개인소유나 마을 공동의 것은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주사한번 놓으면 살아날 백여년 먹은 나무가 그냥 죽어가는 것을 보니 억울했다. 결국 15년만에 퇴사하고 76년 국내 최초로 「나무종합병원」을 세우게 됐다.

나무위해 새벽목욕도

30년동안 나무치료하면서 겪은 일도 가히 소설감이다.



시골에는 마을마다 신목, 당산목이라 해서 신성시하는 나무가 있는데 당장 병들어 죽게 됐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부정탄다고 손도 못대게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설득하느라 애도 많이 먹었다.

86년 송광사의 8백년 먹은 쌍향수를 치료할 때는 천자암 禪院長인 노스님이 목욕재계를 하지 않으면 허락할 수 없다 해서 억지로 15일간 새벽에 목욕을 했던 것이 습관이 돼 이제는 매일 냉수욕을 하고 있다.

인공수피로 특허 획득

보호수나 천연기념물 등 이름이 널리 알려진 나무를 치료하는 것은 부담 때문에 솔직히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죄인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도 섰지 않았던 6백살 먹은 「정이품송」을 살려낸 일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이다.

영양제 투입, 외과수술, 82년 특허를 받은 인공수피를 입히기까지 치료하는데 꼬박 3년이 걸렸고 그동안 영양제만 1천cc짜리 1백70여병이 주입됐으며 의료비도 2억여원이 들었다.

이 외에도 예산 김정희 생가의 백송 등 姜동문이 치료한 천연기념물만도 3백여 그루가 넘는데 「사람도 아니고 나무 치료하는데 뭐가 그리 비싸냐」고 놀라는 사람도 많지만 姜동문은 「나무도 생명체인데 사람 배가르고 대충 꼬맬 수 없는 것처럼 치료를 대충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응수한다.

자신이 상무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수목보호연구회」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꿈인 姜동문은 그동안의 치료 사례와 컬러사진을 모아 「조경수의 보호관리」라는 책을 발간, 전국에 무료 배포하고 있다.

(志)

美談佳話

윤당 체우장학회

집배원 자녀들의 영원한 代父

車有培대덕실업회장

車有培(61년 行大院卒)동문(원내사진)이 「윤당체우장학회」를 설립하게 된 것은 자신이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실업계에서 그만큼 활약하게 된 것은 젊음을 바쳐 체신사업에 종사했던 그 시절이 밑거름이 됐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 은공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방안을 모색하던중 체신 업무중에서도 국민과의 일상접촉이 가장 빈번하고 노고 또한 각별한 외근 종사자(집배원)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지난 93년 9월 사단법인 체우회에 1차 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하게 됐다.

매년 장학금 1천여만원 내놔

사단법인 「체우회」는 체신부(현 정보통신부) 퇴직 공무원들이 평생동지이자 선후배로서 유난히 애착을 갖고 있는 모임이다. 회장을 역임했던만큼 車동문의 애정 또한 각별할 수 밖에 없었다.

20여년간 체신부 국제통신과장, 공보관 및 총무과

장 등을 지내며 인생의 처음을 장식했던 車동문은 스스로 그 때를 「인생 수련장」이었다고 회고한다. 6·25 등 국난의 와중에서도 국가 중추신경의 역할을 해온 체신사업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는 자부심은 남다른 것이었고 격동하는 시대상황을 초월한 동료애는 그 곳을 떠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이 없다.

체신인 동지에 실천에 옮김

車동문은 95년 9월 장학금 지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2억원을 출연하고 정식으로 「윤당체우장학회」를 설립했다. 매년 장기근속 집배원 자녀 10명에게 1백만원씩 대학입학금을 지원하던중 96년 LG그룹이 연하장 발송비 절감액 1억원을 기탁함으로써 총 기금이 4억원으로 증액됐고 이에 따라 매년 14명의 장학생에게 1백20만원씩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근까지 럭키금성그룹 회장실 상임고문, 일본주재 상담역 등을 역임하며 철탄산업훈장 등을 받았던 車



동문으로서 가장 보람된 경험이었다.

장학금 수여식은 체우회와 각 지방 체우회 총회석상에서 거행되는데 이날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참관하는 사람 모두 하나가 되는 감동의 시간이 되어 왔으며, 2, 30년간 고된 노동의 길을 걸은 집배원들의 감격의 눈물은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고는 했다.

전직 체신공무원의 장학금 출연으로는 최초로 설립된 윤당체우장학회는 전국 체신인의 자부심을 제고시킨 것은 물론 전, 현직 체신인간의 동지애와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흥농어린이 심장재단

어린이 10여명에 새 생명

李德勳흥농종묘사장



李德勳(70년 商大卒)동문은 70년 흥농종묘(주)에 입사한 후, 81년 사장에 취임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다른 농부의 모습으로 한 길을 걸어왔으며 그 결실로 재무부장관 표창, 동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흥농어린이 심장재단」은 농촌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온 흥농종묘(주)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사회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재단이다. 현재 이사장으로 활약중인 李동문을 선두로 회사발전의 근간이 된 농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의료시설 부재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로 결정하고 96년 4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했다.

농촌 돕기 일환으로 시작

이곳에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만13세 이하의 농업자 자녀중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어린이들의 수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환자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수술은 1백% 성공을 거둬 벌써 10여명의 어린이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

특히 인간적인 정을 중시해 재단의 직원들과 사회사업가, 병원 관계자 등 모두가 한마음이 돼 환자 및 보호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정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이다. 이 외에도 李동문은 윤곡장학회를 통해 장학사업을 펼치는 한편 여직원회의를 통해 소년소녀 가장들을 후원하고 있다.

해외 동포 지원도 계획

『지원 대상자를 만나다보면 가정형편 때문에 정밀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아 검사중에 다른 질병을 발견하거나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과 무관심으로 수술시기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주위의 관심과 격려속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큰 보람을 느끼지요』

그러나 농촌은 아직 도시에 비해 교육과 의료부문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선천성 심장병의 경우 적절한 시기의 수술이 중요한만큼 홍보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李동문은 재단의 사업이 안정돼 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농촌지역 동사무소와 보건소, 병원을 중심으로 홍보를 극대화해나갈 생각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혜자를 발굴하고 후원회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재원이 확충되면 해외거주 동포나 자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해외 어린이들도 지원할 계획이다.

양천장학회

노점상으로 번 돈 사회에 환원

金潤澤대광산업회장



陽泉 金潤澤(70년 經大院卒)동문의 아호는 韓晶東선생이 지어준 것으로 「밝은 샘」이라는 뜻이다. 金동문은 선친의 뜻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물이 샘처럼 솟아나서 세상을 밝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회 명칭을 「양천장학회」로 정했다.

「종로보증수표」별명 얻어

진남포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을 대할 때마다 金동문의 장학사업의 꿈은 절실해져 갔다. 그러나 꿈을 펼칠 겨를도 없이 6·25전쟁의 와중에서 홀로 단신으로 월남한 金동문은 노점상과 행상을 전전하며 이산의 아픔을 달래야 했다. 20여년간 「종로보증수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성실, 정직, 친절을 신조 삼아 사업을 이끈 덕에 70년 대광흥산주식회사를 설립, 급속히 사세를 넓혀나갔고 대표이사 회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사업을 하는 동안에도 「대광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돕던 金동문은 85년 회갑을 기념해 그

동안 근검절약해 모은 1억5천만원을 출연, 「양천장학회」를 정식으로 창립했다. 장학회가 설립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기금도 5억2천여만원으로 늘어났고 수혜학생도 총 3백40여명에 이른다. 그 중에는 법관, 전문의, 교수 등 사회 각계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한 학생들도 많고 장학회 설립 7년만에 2명의 사시 합격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대여장학제도 최초 도입

특히 「대여장학제도」라는 선진국형의 장학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한후, 형편에 맞게 분할하여 성의껏 반납함으로써 장학이념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선후배간의 유대감은 더욱 돈독해지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신이 받은 것을 사회에 다시 환원함으로써 스스로 장학사업에 참여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으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오지용 변호사의 경우 수혜금액은 1백50만원인데 환급액이 7백만원으로 수혜금액의 4배를 넘고 있으며, 한연희 교사의 경우는 32회에 걸쳐 매년 3만원씩 잊지 않고 보내주는 정성을 보여 이 제도의 본 뜻이 잘 이어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무총리 표창, 국민훈장 목련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한 金동문은 장학회 설립 때부터 한국복지재단과 결연해 결손, 빈곤 가정의 불우 어린이들도 후원하고 있다.

(志)

“신입회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학 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이상일 조영남 최태원 최형우
▲중어중문학과
김세진 김호준 정용환 백웅재
양세욱 김세훈 홍승현
▲영어영문학과
공영곤 김선영 김수경 송용자
신혜원 방영균 류규현 구태현
임신목 최종석 도이현 김주성
▲불어불문학과
박신현 박진아 이영걸 황원규
이충원
▲독어독문학과
황준성 경기일 김영훈 도진해
백광원 정세웅 황태영
▲노어노문학과
신철희 박정근 이성희 이원관
윤형식
▲서어서문학과
박선아 최종욱 정동희 박주리
이강희
▲언어학과
박홍운
▲국사학과
서유리 하영삼 박성순 구완희
이정엽 최정호 김병오 장성근
▲동양사학과
강동국 강기훈 박 범 김진태
조윤호 곽복희
▲서양사학과
박은영 이산해 최윤선 조창호
이병건 이형룡 황원기 신봉철
강희안
▲철학과
김성진 이상현 김동한 김수현
김우현 유병수 조현수 송봉규

윤형식 권영호
▲종교학과
강건우 유광석
▲미학과
박정훈 윤종연 이승재 이해진
신용식
▲고고미술사학과
양성혁 안태성 김태식 김태훈
김성남 류재훈 서순아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황재웅 한정훈 김형직 박성래
▲외교학과
김동욱 윤병후 윤준호 한진희
홍지원 노덕우 이기동 이유라
배철호 손석민 송학근 안정훈
임준수 최희덕 최영래
▲경제학과
강정은 권남열 김경철 정균희
정동욱 정영호 허남혁 박성기
박 원 장성길 김성수 김죽천
김태건 문동욱 이재기 장지욱
전재곤 조건영 홍장희 김재완
김정환 김중명 김홍태 박상길
이재선 이종석 최병원
▲국제경제학과
김상준 김재집 송진호 옥성대
우정훈 유동근 유성완 박성완
김동욱 황윤환 배수한 이 순
정종영 남한길 장봉영 태재준
▲사회학과
박정경 이상용 조원영 박성진
강봉환 김진만 장봉진
▲인류학과
장욱진 김장현 김재석 송영호
정기철
▲심리학과
양진수 김윤현 장병석 김태우
양영준 이재봉 최세진
▲지리학과

김주영 헤이만 우성문 오창렬
함영훈 최재혁
▲사회복지학과
김종윤 김지애 이은수 이채일
▲신문학과
김수임 권윤상 박창섭 박홍균
성기훈 오동택 이재규 박정호
한종태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윤운진 민용기 선경일 김선호
문성철 양태식 박종삼 임채정
▲계산통계학과
김동주 윤지용 김용철 전용호
▲물리학과
박준형 강성민 서지영 원창연
정규대 김철식 손영채 정석환
이영은
▲천문학과
김지훈 황나래 정영신 권경희
강문호
▲화학학과
권재원 홍순혁 손정협 현준상
권주현 나대균 오승욱 조정수
이재호
▲분자생물학과
최성필 최영일
▲미생물학과
박종하 이창우 전형상
▲대기과학과
김영훈 이견웅
▲지질과학과
신재영 김철홍 이지민 정훈영
진성욱 유영석
▲해양학과
이종균 이종혁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임남주

▲의류학과
김생덕
▲소비자이동학과
김소영 박영미 백경화 이인호
허현실 김진형

◇경영대학

▲경영학과
김병재 김상부 김선운 김수완
김원영 전재현 권진홍 박지훈
신영진 안성호 이호찬 전재형
강부선 강세훈 강원규 김성노
김시번 김종재 김형근 문제상
변현수 서원석 신호승 이강우
이계원 이세현 이승수 이형락
차용건 곽경평 김병조 김진규
문병섭 박종필 이상철 이석인
장명효 최종항 홍장만 양재용

◇공과대학

▲건축학과
백충렬 서성호 정연성 강주형
김종호 정재희 김주경 박수관
김영욱 김대현 전용수
▲금속공학과
이강규
▲기계공학과
박진수 김준환 서석진 최원영
▲기계설계학과
구태웅 유정대 김경철 주하형
▲산업공학과
최대근 김경수 조형곤
▲섬유고분자공학과
손범진 김성래
▲무기재료공학과
김상욱 박찬민
▲원자핵공학과
김주태 배성환 서정관 문병도
▲자원공학과
김 석 이영석 남 일 이창현
▲조선해양공학과

김성기 강덕진
▲항공우주공학과
윤창문
▲화학공학과
이민성 강승관 최용훈
▲컴퓨터공학과
서정훈 이상철 정승진 김용성
김희재 이세영
▲전기공학과
임석환 류재광 박진호 송은석
황인화 김수현 송병무 박정훈
최항석 권무식 이하근 전호승
권명진 최용훈 이장원 변경석
차호영 김세원 박지현 민봉기
박준홍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과
성광호 이운영 박재홍 조민호
성복규
▲원예학과
정 선
▲산림자원학과
김영철 이종석 임상표 조정현
장성재 김승한
▲임산공학과
김정식 김성봉 강희식 김동수
노병영
▲농화학과
박종섭 이해영 최창규 안효정
양석준
▲식품공학과
이지훈 최지욱 김형섭 김인덕
▲농경제학과
김재범 전상곤 김영배 배정석
이종성
▲동물자원학과
정월환 이상진 정원덕 류기형
박원규 하태국 곽 현
▲천연섬유학과
이경운

▲농생물학과

김 원 조승희 이호중 김화중
윤영조 고대권

▲농공학과

황현부 조영제 조진상

▲농가정학과

배양희 양미란 이병희 정지영
신동미 이수진

▲농업교육학과

박수현 오권진 송기원 오재천
이병식 이용주 진상권 문정훈
이채식 현용원 최종운

▲조경학과

백은주 주병훈 이상형 박성용

◇미술대학

▲서양학과

성윤진 정복영 최용신

▲공예과

나호용 신일용

▲산업디자인과

최인규 손성배 선명규 최장섭
황수홍 임창진 도원호

◇법과대학

▲사법학과

강성모 박윤경 구창종 김재방
김정민 민성철 손찬오 엄대호
이상수 이원근 이혜원 이효진
정성균 조용범 황혜신 유동훈
임창훈 임한준 전재우 최정환
전준호 박수영 박태영 배상근
손익준

▲공법학과

고영권 권종선 김갑천 김성훈
김창호 류지현 반형걸 백광기
윤정현 최종무 이은태 안종석
박경희 구본성 김우재 박 용
방이열 송상교 채주엽 이상화
송상엽 이성훈 이지훈 이필관
조장혁 한진권 김대기 정진웅
정응기 우한기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상욱
▲국어교육과
강민경 김희정 이성희 진명주
최정자 하수영 전순욱 임종수
김용진

▲영어교육과

장윤식 정정원

▲불어교육과

김남현 최정수

▲독어교육과

오혜령 이희찬 조미숙 최정아

▲사회교육과

이연경 장은영 김찬일 남철현
박철용 손종호 조옥래 한현수
장흥기

▲역사교육과

손정은 김희관 백인현

▲지리교육과

류원희 석종오 임정미 전용완

▲국민윤리교육과

최영수 이용학

▲수학교육과

김도윤 김창덕 유병진 박성률

▲물리교육과

염진우 강용범

▲화학교육과

이해선

▲생물교육과

오세경 서호건 조영기

▲지구과학교육과

김규일 소영무

▲체육교육과

주성민 김중구 박종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정지윤 배윤일 권현근

◇음악대학

▲성악과

김재형 이종운

▲작곡과

박혜진

▲기악과

임현정 김성훈 이우혁 김태희

김희성 박승근 김남수 이정윤

▲국악과

김복비 민소윤 박치완 임현정
위 철 이정엽

석 사

◇문학

김소희 박현수 임수만 우정권
윤대석 이지영 최형강 사 노
김지영 김준연 박정영 박찬경
최형섭 권성환 김효실 박소영
이진원 이한정 김완신 남경순
김상구 안지영 김상유 박은영
이은아 한순희 신현종 이용기
조규환 이종서 조행복 정범진
김한상 이상돈 이진오 정해인
이상곤 최경석 김 율 서현주
권순원 권영숙 임현경 장진호
이영미 변필성 이기봉 장희준
윤희열 민소영 여유진 성열우
연규찬 권태철 신주진 정성욱
이하림 장지영

◇정치학

유수빈

◇경제학

강동근 조성만 조용언 심일혁
김신근 심재용 이형범 신성웅
권혁욱 김종훈 이병채 김연민
진현정 이재균 이한녕

◇경영학

이민욱 고광호 박정호 박석준
이성식 김진억 김태하 김태형
나선아 조 훈 김성룡 노동훈
박명진 윤동률 윤주엽 이월형
조병철 홍진환

◇법학

전현정 박진영 이기선 홍대식
김태명

◇이학

이완복 김효상 이창형 김상선
김화정 박지훈 이화숙 김영준
이진영 박연준 양성철 여아란
위선옥 이상현 강명찬 박원영
이동환 조미경 최정우 김문정

심재구 임돌이 정도영 강 선
김현정 박진희 조혜정 이승우
안 민 배광옥 현윤정 유용재
박권수

◇가정학

장연수 김정연 고효정 권혜진
전숙영 이정숙

◇약학

이철구 천제영 김영화

◇공학

노영호 오광석 한범수 기 봉
박태현 정종기 김태진 이진광
박용현 라원균 이경윤 이승준
정은철 장학성 김대영 진남희
김용진 강호석 김두식 이준찬

◇농학

이우문 이정양 고기연 이명섭
조용민 조성백 박향숙 이관석
박태선

◇수의학

라정찬 박은성 용환을 조동희

◇미술학

추인엽 류용문 허윤선 도혜선
서원영 김준희 김지현 김용경
김용수 박지훈 윤경환 허승환
김영립 김정희 신청우

◇음악학

강영숙 최희정 김정아 박판수
홍병문 김수혜 박세나 성기련
성유진

◇교육학

서정민 이은경 신승렬 류숙희
양금성 김혜경 한정은 김지현
전주성 김영래 이영미 조윤숙
홍은정 오선민 류수열 여덕휘
박종훈 송여주 이진수 이진경
최선영 최윤정 금소희 김정희
정 은 김환수 임병로 김은영
이훈정 신현우 김순선 김은아
박은주 심재춘 박순규 이민영
강택균 김동연 최원호 이현주
서성미 최용주 변기범 김진국
조재민 김성기 이옥선 이효진

◇의학

오도훈 전혜정 정미진 함봉진
장은화

◇간호학

유옥수 강경자 김윤미 서현미
이동숙 이지연 전미양

◇치의학

신경민

◇보건학

한경희 김동원 양병국 조비룡
안영창 최순영 정광수 이선민
정향민 한영미 요리타 김운목
김은희 김재희 리갑수 손은희
황보영 송태우 김 용 최혜숙
이주영 김점자 이태하 오세완
백운석 광영순 김용훈 신풍식
윤용태 이기라 조숙자

◇행정학

박정오 전성수 김대희 문강주
이준형 허남덕 한공식 김형년
김형수 김형주 손창익 최용호
김대철 김충환 천해성 류환민
김상훈 이흥균 최영진 정태진
이성엽 임영환 전규석 한상우

◇도시계획학

이병민 한상준 박진영 이정엽
임 업 안종희 박상진 이만수
이해진 장성길 조덕훈

◇조경학

황수원 김대성 김복영 김현대
박찬명 이정훈 백원광 이춘석
윤여범 조용현

박 사

◇문학

박성종 남미혜 송기한 이흥식
강혜선 임동훈 문금현 김경훈
권혁석 심혜영 김우석 강성위
홍석표 김용기 이재황 임홍배
김태환 송재호 공인숙 박혜경
연규동 권오영 이운상 이상찬
토니노 강석화 배우성 김배철
김재훈 이창휘 설동훈 이태연
권문일 홍경준 이성구 김세호
원정식

◇철학

박해당 이봉규 김상득 김대오
신광철 백운수 박일호

◇정치학

송주명 양길현 김용복

◇경제학

원승연 안현호 황덕순

◇경영학

김완희 김주성 송창석 노영성

◇법학

박진순 황도수 박현석 신우철
김승대 최영호 황승흠 이상수

◇이학

이대웅 김수홍 김윤호 이용희
홍은지 김갑수 류연승 이영훈
이건도 고관협 박현민 기혜영
천승현 김정대 강윤호 이정일
김승리 양민오 김하동 조철내
신동해 이상규 권석운 김성천
박건태 신기순 우승균 고영상
권재열 김은자 안치영 이순동
안순일 고상모 이수재 정찬호
김영규 정문섭 박경애 신동원
한진숙 홍지명 정찬주 이선영

◇약학

김세은 김이룡 김숙경 이광열
강수연 진미립

◇공학

유광흠 최창훈 박상재 박영세
박진남 하병조 이상기 이무영

홍성철 최주태 이선호 이충도
양준모 최형권 이충훈 조경두
정재동 이형식 신동원 정오진
윤성만 정성천 정한일 박찬권
백상엽 신인섭 정의석 김상열
황성덕 윤영권 김동영 이상훈
윤혁준 이용의 장병관 김명진
장진욱 최정혜 박형준 이병철
강경두 정병렬 조성오 최병룡
박길천 이경주 이상돈 이정동
김일동 류홍우 송종환 김광원
김장목 손광명 윤종만 이호준
이상욱 최종우 현승호 이재영
정재경 최영하 김규동 박성준
조성호 임준석 고영찬 유태종
박민호 심 호 최재완 윤석구
이성민 이형준 권기준 서정문
이남주 정범석 양구승 주석범
강호익 편무옥 이상기 신의섭
김선태 김지홍 허기훈 문승현
윤종한 강인구 이익형 조은수
김인선 김용환 황인국 황진구
김용관 양윤기 윤일동 정도형
권영미 김철민 송민호 서병락
조성제 박승철 이종우 노갑수

◇농학

남상용 손영희 강현중 김승유
홍경훈 홍지훈 김만조 박동균
김명길 전영승 윤승현 이광길
최진용 정봉환 정명철

◇가정학

김영희

◇수의학

홍충만 주홍구 태주호 김윤배
연성찬

◇교육학

김진화 김승호 최광만 서민원
최홍숙 윤인섭 송대영 이혁규
이해주 노병철 김수미 이경화
권경오 이덕기 광운향 김정석
성정희

◇의학

이종구 장 광 김건석 권석운
정성량 김덕하 김영권 민성원
이경훈 이영성 홍성화 김영덕
김재형 김호중 문병인 문재환
유영복 장미수 정선근 한철주
김용철 김은상 김태유 도영수
박진영 방문석 이경한 이현근
장진호 홍수중

◇간호학

유경희 김혜원

◇치의학

손효현 박명선 백정화 신동용
전주홍 김태영 사명희 고흥섭
박주철 우경미 이시영 이 진

◇보건학

김록호 윤치근 김유진 방형애

◇행정학

김종철 이준원 김용훈 김수현
이상대

“회비를 납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문여러분께서 내주신 회비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 및 미술전, 음악회, 회보 발간 등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교와 동창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理事:6월 27일~7월 11일·一般:6월 24일~7월 12일〉

회 장 단

- ▲부회장 宋斗瀨 = 1백만원
▲부회장 金柱津 = 1백만원

이 사

◇社會科學大學

- ▲강암구⑥의료보험聯부장
▲김동균⑨신평창업투자
▲이영두⑦동아석재부사장

◇家政大學

- ▲정영선③한국다문화연구소장
▲현은강⑥인하대학교수

◇經營大學

- ▲권기출⑦제우기계이사
▲조규근⑦현대증권(주)부장

◇工科大學

- ▲강훈식⑨발레오테크대표
▲권기태⑥한라산업기술사장
▲권희섭⑦경기화학대표이사
▲김덕재⑥중앙대학교수
▲김석주④前전우통상사장
▲김연수⑥한국투자증권교문
▲김영웅④삼성전기전무이사
▲김정식⑥대전전자회장
▲김준호④법아건축대표이사
▲김태섭⑦신아조선대표이사
▲김판수⑦삼양화성대표이사
▲김형태⑥삼인유니코라스
▲김홍훈⑦국제지리정보교문
▲김희국⑥(주)위도대표이사
▲박창선⑥삼성건설부사장
▲박평주④서울대명예교수
▲배상태⑥성일화섬사장
▲서석천⑦한전기공사장
▲선우정호⑥경우구조개발대표
▲신명환⑥동부건설부사장
▲신봉현⑥부리전기공업대표
▲심해경⑥화인주택대표이사
▲염홍주⑦오주산업대표이사
▲오화석⑥前철도전문대학장
▲유시영⑥한국자원연구원
▲윤봉순⑥삼화기업회장
▲이기평⑦법진기공전무이사
▲이봉규④감리사
▲이시우⑦페트로코리아대표
▲이창갑⑥건양대총장
▲이환범⑥대영ENG대표
▲전효택⑦서울대학교수
▲정병일④풍원광업ENG
▲조영근⑦前중석공업상무
▲조항구⑥삼부토건부사장
▲주경재⑦전국대학교수
▲차옥선⑥한양대학교수
▲한건우⑥(주)한서

- ▲함명호⑥건풍상사사장
▲허인석⑦우성산업대표이사
▲황인호⑥한기종합건축대표

◇農科大學

- ▲김상원⑥前대법원대법관
▲김상호⑥대풍상사대표이사
▲김주호⑥한국사료협회장
▲박용욱④두산기술원위원
▲변종훈⑥한일화학대표이사
▲신한풍⑥고려대학교수
▲윤석룡⑥쌍용ENG전무
▲이택원⑥호서대학교수
▲한정남⑥호남사나사장

◇文理科大學

- ▲김근수⑦국민銀서초지점장
▲김세준⑥前제일스포츠센터
▲김용달⑥한일투자신탁감사
▲김찬중⑥한샘루핀전무이사
▲나종일⑥서울대명예교수
▲박상태⑥서울대학교수
▲박상태⑥서강대학교수
▲박의송④우풍신용금고대표
▲박재홍⑦경상대학교수
▲박종오⑥우양교역사장
▲박형규⑦현정회연구실장
▲신용하⑥서울대학교수
▲신학용⑦법무사
▲이경재④국회의원
▲이광찬⑥원광대학교수
▲이부영⑥국회의원
▲이종률④前국회사무총장
▲이준희⑥세기문화사국장
▲전상호⑥농심데이터대표
▲전용성⑥변호사
▲정병오⑦대우증권중부지역
▲조동현⑥前유성건설산업
▲진형인⑦한국해운산업
▲한동목⑥화일무역
▲한병삼⑥前중앙국립박물관
▲한영우⑥서울대학교수

◇美術大學

- ▲정탁영⑥서울대학교수

◇法科大學

- ▲강진성⑥영보합명회사
▲곽노준⑦변호사
▲구운회⑥세무사
▲권갑주⑥광한기획회장
▲권호장⑥과천시장
▲김기천⑥변호사
▲김대환⑥서울고법부장판사
▲김동연⑦한국야쿠르트유업
▲김동호⑥마이TV대표이사
▲김병룡⑥한국지역난방공사
▲김보근⑦건설교통저널사장
▲김영채⑥변호사

- ▲김윤호⑥전주지검군산지청
▲김재기⑦서울지검공안1부
▲김정렬⑥한국능률協회회장
▲김창준⑥외국어대학교수
▲김 청⑥국민銀독산동지점
▲김홍현⑦변호사
▲박동수⑥은행감독원부국장
▲박문규⑦대도건설상무이사
▲박성섭⑦前덕산그룹회장
▲박순용⑥법무부교정국장
▲박연시⑦前제일은행
▲박영석⑥한국제강부사장
▲박영수⑥광주은행장
▲박원철⑥구로구청장
▲박철우⑥축협중앙회부회장
▲백영엽⑦사법연수원

- ▲송기영⑦변호사
▲송상현⑥서울대학교수
▲송진호⑥부산고법원장
▲신명균⑥서울고법부장판사
▲신영무⑦변호사
▲양재호⑦양천구청장
▲양창덕⑥DIC대표이사
▲원우현⑥고려대학교수
▲원의중⑥계성제지자금담당
▲윤교중⑦하나은행상무이사
▲이국주⑥서울지법서부지원
▲이규효⑦변호사
▲이동춘⑥포항제철부사장
▲이동희⑥前한국관광협회
▲이병석⑥한국사료협회장
▲이상하⑥프레스센터이사장
▲이 원⑥한전기공사장
▲이정렬⑥前인천항관리공사
▲이천수⑥교원공제회이사장
▲이해봉⑦국회의원
▲임흥순⑦변호사

- ▲전병우⑥前한국전기통신공
▲정시영④변호사
▲정저훈⑥막림주택환경회장
▲조건호⑥국무총리실조정관
▲조관행⑥한국보증보험대표
▲조성일⑥협신상호신용금고
▲조 언⑥변호사
▲조영식⑥경희대학교수
▲조용완⑥서울지법서부지원
▲조준희⑥변호사
▲조해녕⑥총무처장관
▲진영배⑥태영레저대표이사
▲채희경⑥(주)삼미부회장
▲최광률⑥변호사
▲최기영⑥정선파킹시스템스
▲최운상④
▲최희준⑥국회의원
▲한유동⑥고요한소리사무국
▲현경대④국회의원
▲황활웅⑦서울시경경무부장

◇師範大學

- ▲곽후섭⑥신용금고연합회장

- ▲김관영⑥영동여고교장
▲노치숙⑦성심여대학교수
▲박봉배⑥前서울교대학교수
▲서인경⑥한일고교장
▲어명하⑥통일연수원교수
▲유덕준⑥삼척산업대학교수
▲유봉호⑥前이화여대학교수
▲윤봉련④前홍지유치원장
▲이돈영⑥효성중공업부사장
▲이명균⑥삼경섬유산업전무
▲이 형⑥대전대학교수
▲임덕순⑥충북대학교수
▲정영근⑦전남대학교수
▲정창현⑥중동고교장
▲조태경⑥공주사대학교수

◇商科大學

- ▲고덕영⑥일은증권전무이사
▲권태명⑥동아출판대표이사
▲김명호⑦前한국은행총재
▲김상렬⑥외환은행서초지점
▲김성두⑥세방전지대표이사
▲김현균⑥삼성반도체부사장
▲노병태⑥현대종합목재산업
▲노영구⑥산업은행부총재보
▲노재승⑥변호사
▲박근준⑥대한제당부회장
▲박동순⑥중앙리스대표이사
▲박청부⑥증권감독원장
▲안희중⑥국동도시가스전무
▲윤우진⑥외환은행명동지점
▲이병국⑥(주)대현부사장
▲정덕용⑥문화실업대표이사
▲채길수⑦동방재무컨설팅
▲최해은⑥화인산업회장

◇獸醫科大學

- ▲김성수⑥대창동물병원
▲김인호⑦서울해륙공업사장
▲김태현⑦정일중돈장대표
▲박현기⑦충남가축위생시험
▲양기천⑥제주대학교수
▲윤영태⑦시아스코리아공장
▲이형우⑥이수의과병원장

◇藥學大學

- ▲공남식⑥신당약국
▲권창호⑥경희대학교수
▲김금림⑥환인제약부사장
▲박경렬⑦유성약국
▲유용근⑥한국그락소전무
▲이성태⑥신평제약상무이사
▲이정석⑦보건복지부사무관
▲조인형⑥태광약국

◇音樂大學

- ▲안형일⑥서울대명예교수
▲유명영④前서울교대학교수
▲이재숙⑥서울대학교수

◇醫科大學

- ▲고행일⑦백병원내과과장
▲김영철⑦이대목동병원과장
▲김재홍⑥한양의대피부과장
▲김종백⑥안과의원장
▲김주완⑥서울대명예교수
▲김홍기④前인천중앙길병원
▲문진수⑦가야자모의원장
▲박봉륜⑥법일정형외과
▲박정숙④성남중앙병원내과
▲박항배⑥한양대학교수
▲박형중⑥인제대부총장
▲신순현⑥중앙대의료원장
▲안돈희⑥국립의료원소아과
▲엄영섭④염소아과의원장
▲유성희⑥동서울병원장
▲윤수중⑦신경정신과의원장
▲이성규⑦보훈병원일반외과
▲이수철⑦신경정신과의원장
▲이영근⑥前대전을지병원
▲이원기⑥단국대학교수
▲최재득⑥내과의원장
▲최훈동⑦백산신경정신과

◇齒科大學

- ▲김영권⑥치과의원장
▲김용준⑥치과의원장
▲김행원⑥치과의원장
▲서정기⑥치과의원장
▲양일수⑦양치과의원장
▲윤학영⑥치과의원장
▲이수백⑦치과의원장
▲이영애⑥광민치과의원장
▲이한무⑦치과의원장
▲한중희⑦치과의원장
▲허연옥⑥강성치과의원장

◇經營大學院

- ▲신인철⑥시문통상대표이사
▲황길태⑥前대구달성공단

◇保健大學院

- ▲김순태⑦성신의원장
▲장주호⑦명진의원장

◇司法大學院

- ▲이기영⑥변호사

◇行政大學院

- ▲강병천⑦(주)석천대표이사
▲김인동⑦서울시의회의원
▲김재호⑥건영통상교문
▲서재근⑥신한국창조본부
▲원병의⑥대한건설진흥회장
▲황갑순⑥지역개발학회

◇環境大學院

- ▲박상우⑦국토개발연구원

일 반

◇人文大學

▲김경미⁸⁷ ▲김대환⁸⁵
▲김혜송⁸⁸ ▲박명식⁸¹
▲박연수⁷⁷ ▲박하영⁷⁷
▲박해경⁸⁸ ▲백명진⁸⁸
▲원종례⁷⁷ ▲윤종민⁸³
▲이상진⁸⁶ ▲이선규⁸¹
▲임미화⁸⁹

◇社會科學大學

▲김재현⁸⁹ ▲박성민⁸⁷
▲박홍재⁸⁸ ▲안현실⁸⁵
▲유영표⁸⁰ ▲이근승⁸⁹
▲장규홍⁸⁸ ▲장홍근⁸⁵
▲전민규⁹⁰ ▲정재호⁷⁷
▲정충기⁸⁵ ▲조홍래⁸³
▲최낙민⁸⁷ ▲최정환⁸⁹

◇自然科學大學

▲강주석⁸⁸ ▲김선경⁸⁹
▲안영인⁸⁸ ▲오영훈⁸⁸
▲이기섭⁸⁵ ▲이승구⁸³
▲이승훈⁸⁹ ▲이용재⁷⁸
▲이재범⁸⁷ ▲이종대⁸⁹

◇家政大學

▲경희호⁸⁴ ▲류지수⁸⁷
▲민혜식⁸⁶ ▲박영애⁷³
▲서복선⁷⁴ ▲원명심⁷⁹
▲이계숙⁸⁰ ▲이매리⁸⁸
▲이중희⁸² ▲이효진⁸⁴
▲정진엽⁸² ▲한종혜⁷⁵

◇看護大學

▲김명숙⁸⁵ ▲유명옥⁸⁹
▲유영희⁷⁹ ▲이미옥⁸⁶
▲이용아⁸⁵ ▲이재양⁸³

◇經營大學

▲김명관⁸⁶ ▲김일건⁸⁵
▲김재환⁸⁷ ▲김철주⁷⁹
▲김홍섭⁸³ ▲여영종⁸⁰
▲여충호⁸⁶ ▲이성우⁷⁸
▲제준환⁷⁹ ▲최영석⁹³

◇工科大學

▲강연준⁸⁸ ▲강영수⁷⁰
▲강영순⁸⁶ ▲강현식⁷³
▲강환구⁸¹ ▲고광빈⁸⁶
▲고영찬⁷¹ ▲공태근⁸⁵
▲구본홍⁸⁶ ▲구자공⁷⁵
▲구재진⁷⁴ ▲권동일⁷⁹
▲권영준⁸⁸ ▲김경수⁷⁷
▲김경식⁸² ▲김경화⁶⁹
▲김광모⁸⁶ ▲김광우⁸⁵
▲김기풍⁸⁵ ▲김대환⁸⁵
▲김도향⁸⁰ ▲김동상⁸⁹
▲김두진⁸⁵ ▲김득수⁷⁶
▲김병기⁸³ ▲김병수⁷³
▲김병웅⁸⁶ ▲김병태⁷³
▲김성대⁷⁷ ▲김성조⁷⁵
▲김세진⁶⁹ ▲김연식⁸⁶
▲김영재⁸¹ ▲김 용⁸⁸
▲김용희⁸³ ▲김원태⁸⁸
▲김윤제⁸⁶ ▲김인섭⁸⁵
▲김재필⁸⁴ ▲김종국⁸⁵
▲김준승⁸⁸ ▲김종원⁷⁸
▲김창만⁷² ▲김현진⁸⁵
▲김형수⁷⁷ ▲김혜진⁸⁸

▲김효섭⁸¹ ▲김 회⁷⁰
▲남시도⁸³ ▲노주섭⁶⁹
▲독고정⁸⁵ ▲류명선⁸⁸
▲민태정⁷¹ ▲박구원⁷³
▲박동재⁸⁵ ▲박병완⁸²
▲박상덕⁷⁶ ▲박의종⁸⁵
▲박장영⁸⁴ ▲박준석⁸⁷
▲박찬정⁷⁷ ▲박 철⁸⁴
▲방선기⁷⁴ ▲백영진⁸⁵
▲서동목⁷³ ▲서재준⁸¹
▲성천경⁷⁰ ▲손명기⁷⁶
▲손승래⁸⁸ ▲송진억⁸⁹
▲신기룡⁷⁴ ▲심명규⁸⁷
▲심일섭⁸⁹ ▲심형보⁸⁸
▲안치명⁸⁵ ▲양승무⁷⁰
▲여민중⁸⁶ ▲염갑형⁷²
▲오명환⁸⁵ ▲오정환⁷⁰
▲유경준⁸⁶ ▲윤석민⁸⁷
▲윤영철⁷⁰ ▲윤정배⁸⁰
▲이강우⁷³ ▲이교상⁷⁰
▲이구택⁶⁹ ▲이근섭⁸⁶
▲이기웅⁷¹ ▲이기원⁸⁴
▲이동국⁷¹ ▲이동호⁸⁹
▲이명렬⁸⁴ ▲이문석⁸⁵
▲이병하⁷³ ▲이상돈⁸⁸
▲이상웅⁸⁵ ▲이성기⁸⁸
▲이영섭⁸⁶ ▲이완상⁸⁸
▲이용학⁸⁴ ▲이윤종⁸⁴
▲이은재⁸⁶ ▲이임택⁸⁵
▲이종상⁷⁵ ▲이종승⁸⁶
▲이종철⁷⁶ ▲이종훈⁹³
▲이준렬⁷⁴ ▲이창욱⁷⁶
▲이충호⁸⁸ ▲이희희⁸⁶
▲장철현⁸² ▲전병진⁷⁸
▲전준수⁸⁵ ▲정강익⁸⁴
▲정경렬⁸¹ ▲정영우⁸⁸
▲정진오⁹⁴ ▲정대영⁷⁵
▲정현일⁸⁴ ▲조창기⁸⁸
▲조현기⁸⁹ ▲조현우⁸⁷
▲주광윤⁶⁹ ▲최안분⁸³
▲최호진⁸² ▲최희석⁷²
▲편영준⁸¹ ▲하운수⁸⁸
▲한재천⁸² ▲한종훈⁷⁴
▲홍기준⁷³ ▲홍대형⁸⁹
▲홍문기⁸⁴ ▲홍순익⁷⁰
▲홍재도⁷⁵ ▲홍재훈⁸⁵
▲황철성⁸⁷ ▲황 현⁷⁶
▲황환무⁸²

◇農科大學

▲강인평⁸⁹ ▲고장달⁸⁹
▲김내현⁸⁷ ▲김득래⁸⁵
▲김범경⁸⁹ ▲김병운⁸⁰
▲김봉희⁸² ▲김석구⁸⁵
▲김성기⁸⁴ ▲김성태⁷¹
▲김종국⁷⁰ ▲김치익⁷⁸
▲김 현⁸⁵ ▲김현옥⁸⁷
▲남정배⁷⁷ ▲문평식⁸⁹
▲민경태⁸⁴ ▲박도동⁷⁷
▲박상홍⁸⁹ ▲박종갑⁸⁷
▲방석남⁷⁸ ▲배동호⁸³
▲배종선⁷¹ ▲백운봉⁸⁴
▲서돈영⁸⁷ ▲서정선⁸⁶
▲성영수⁸² ▲송계원⁸⁸
▲신대섭⁸⁰ ▲신언곤⁸⁸
▲신정재⁸³ ▲심종섭⁸¹
▲오과철⁸⁴ ▲유성곤⁸⁷
▲윤재호⁷³ ▲이경희⁸⁸
▲이광웅⁸⁸ ▲이기순⁷³
▲이길남⁸⁹ ▲이도경⁸³
▲이병천⁸⁹ ▲이병철⁸³
▲이복남⁸³ ▲이서래⁸⁵

▲이신기⁸⁴ ▲이은종⁸³
▲이재원⁸⁶ ▲이정복⁸⁶
▲이진희⁸⁵ ▲이춘영⁸⁹
▲이택구⁸⁹ ▲임상녕⁸⁹
▲임수호⁸³ ▲정경진⁸¹
▲정문섭⁹⁵ ▲정병기⁸⁷
▲정익신⁷⁰ ▲정정민⁸⁶
▲정주영⁷⁴ ▲조상래⁸⁶
▲채상목⁸⁵ ▲채수근⁸⁸
▲한상봉⁸³ ▲홍성구⁷²

◇文理科大學

▲강인구⁸³ ▲강희영⁸³
▲구수모⁷¹ ▲권영해⁸⁹
▲김규영⁸² ▲김덕환⁸⁹
▲김상욱⁸¹ ▲김석준⁸⁸
▲김수년⁸⁷ ▲김영국⁸⁰
▲김의수⁸⁸ ▲김인섭⁸⁷
▲김재성⁸⁶ ▲김한도⁸¹
▲김형태⁸⁴ ▲김형태⁸³
▲문인형⁸⁴ ▲박도순⁸²
▲박우석⁷⁰ ▲박일현⁸²
▲박정국⁷⁵ ▲박창정⁷³
▲배인하⁸⁶ ▲변중섭⁸²
▲성만웅⁸⁷ ▲신동철⁸⁵
▲신섭중⁸⁶ ▲신충균⁸⁵
▲신태건⁷¹ ▲심영호⁸³
▲안표순⁸⁶ ▲양훈본⁸⁴
▲오정섭⁸⁵ ▲오대환⁸⁵
▲오현승⁸⁹ ▲유시명⁷²
▲유재갑⁷⁰ ▲유지현⁷⁰
▲윤홍근⁸⁷ ▲이강승⁷¹
▲이강조⁸² ▲이경덕⁷⁰
▲이 랑⁸⁴ ▲이승훈⁸⁹
▲이시우⁸⁸ ▲이윤희⁸³
▲이재호⁸⁰ ▲이종길⁸⁴
▲이해영⁸⁷ ▲전중수⁸⁶
▲정시호⁸⁰ ▲정정영⁸⁶
▲주혜경⁷² ▲채영복⁸⁹
▲최병두⁸⁸ ▲최용찬⁸⁹
▲추국엽⁸⁶

◇美術大學

▲권달술⁸⁶ ▲김영대⁷⁵
▲김대욱⁸⁷ ▲김현실⁷⁰
▲노명자⁸⁷ ▲박주영⁷³
▲변희준⁷¹ ▲연경자⁸³
▲유호중⁸⁵ ▲윤영출⁸⁶
▲이상희⁸⁴ ▲임명옥⁸⁵

◇法科大學

▲강동세⁸¹ ▲강신경⁸¹
▲강일원⁸² ▲김경만⁸⁴
▲김경철⁷⁶ ▲김남홍⁸²
▲김대식⁷⁹ ▲김동주⁷¹
▲김두식⁸⁹ ▲김명배⁸⁶
▲김백영⁸⁵ ▲김세돈⁷⁹
▲김세충⁷⁶ ▲김용채⁷⁵
▲김윤수⁸⁷ ▲김재훈⁸⁰
▲김정중⁸⁹ ▲김진하⁸²
▲김창환⁸¹ ▲김창희⁸⁶
▲김평남⁸⁵ ▲남기춘⁸³
▲박준모⁸⁸ ▲박행웅⁷⁴
▲배달순⁸⁷ ▲배진권⁸⁰
▲백상현⁷⁷ ▲백세웅⁸⁸
▲서규영⁸³ ▲서창훈⁸⁵
▲서태영⁷⁴ ▲송용호⁸⁹
▲신경식⁸⁶ ▲신영수⁷⁴
▲신용도⁸³ ▲안상돈⁸³
▲안영진⁸⁵ ▲안창수⁸⁷
▲오동섭⁸⁹ ▲윤만준⁷⁰
▲이경재⁷² ▲이관빈⁸⁹

▲이균철⁸⁹ ▲이근후⁷⁶
▲이기영⁸⁵ ▲이범주⁸⁶
▲이상기⁸³ ▲이상덕⁸⁴
▲이상원⁸⁴ ▲이상희⁸⁸
▲이세형⁷³ ▲이영애⁷¹
▲이원달⁸⁷ ▲이일우⁸⁴
▲이주성⁸⁰ ▲이주홍⁷⁴
▲이춘근⁸⁷ ▲이현영⁸⁹
▲임권수⁸¹ ▲임성권⁸³
▲임완규⁸⁹ ▲임철홍⁸⁷
▲정갑주⁷⁷ ▲정계성⁷³
▲정병권⁸³ ▲정영화⁸⁵
▲정중현⁸⁶ ▲정현수⁷⁹
▲조규태⁸³ ▲조성서⁸⁷
▲조정식⁷² ▲조현순⁸⁴
▲차태윤⁸⁹ ▲최병각⁸¹
▲최성주⁸⁸ ▲한기일⁸⁴
▲한용기⁸² ▲홍윤식⁸⁷
▲황영옥⁸³

◇師範大學

▲강희동⁷⁹ ▲구자현⁸⁷
▲권 군⁸⁵ ▲김대희⁸¹
▲김동학⁸⁸ ▲김무홍⁸⁴
▲김복근⁸⁵ ▲김석훈⁷⁹
▲김수형⁸⁵ ▲김순배⁸⁵
▲김시양⁸⁰ ▲김영자⁸⁰
▲김용선⁷¹ ▲김재호⁸⁷
▲김준호⁸⁵ ▲김중언⁸⁸
▲김진실⁸³ ▲김진원⁸⁷
▲김혜우⁸⁹ ▲김혜인⁸³
▲남궁이⁸¹ ▲노영석⁷⁷
▲노옥섭⁷⁰ ▲문영식⁷⁷
▲민홍규⁸⁶ ▲박승용⁸⁰
▲박승철⁸³ ▲박영배⁸⁷
▲박인호⁸⁷ ▲박재희⁸⁷
▲박정남⁸⁷ ▲박준희⁸⁰
▲박찬욱⁷⁰ ▲박희문⁸⁰
▲서은경⁸⁰ ▲소현영⁷⁴
▲손기영⁸³ ▲손상남⁸⁸
▲손영식⁷² ▲송대성⁸⁸
▲신용국⁸⁹ ▲안성봉⁸⁴
▲안온신⁸⁵ ▲양춘집⁸⁶
▲엄옥금⁸⁹ ▲오병승⁸⁷
▲오진경⁸⁸ ▲오평진⁷⁵
▲오희복⁷⁹ ▲우인섭⁸¹
▲유기웅⁷² ▲유상일⁷⁵
▲이경희⁷⁵ ▲이복환⁷⁷
▲이사행⁸⁵ ▲이영배⁸⁴
▲이영숙⁷⁴ ▲이인화⁸⁷
▲이정록⁷⁴ ▲이중근⁸⁹
▲이창훈⁷⁷ ▲임복희⁸¹
▲장문식⁷⁴ ▲전동수⁸²
▲정경조⁸⁰ ▲정근홍⁸⁸
▲정태규⁷⁶ ▲조영진⁸⁰
▲조익래⁸⁷ ▲조정재⁸⁷
▲차상렬⁸⁷ ▲채종환⁸³
▲최종승⁷⁰ ▲추병수⁸⁸
▲하갑수⁸⁰ ▲한천옥⁷⁵
▲홍성호⁸³ ▲홍운표⁸⁸
▲황종복⁷⁰

◇商科大學

▲강석홍⁷⁰ ▲강성원⁷⁰
▲고명환⁸⁶ ▲권태신⁷²
▲김광태⁸⁸ ▲김길수⁷⁰
▲김승만⁸³ ▲김영광⁷¹
▲김유일⁸⁷ ▲김장환⁸⁶
▲김정호⁷⁴ ▲김종창⁷¹
▲김준성⁸⁸ ▲김종석⁸⁹
▲김철환⁸⁷ ▲문운룡⁸⁵
▲민용식⁸⁴ ▲박순규⁸⁴

▲박승현⁸⁸ ▲박영대⁸⁰
▲박용범⁸⁶ ▲박인태⁸⁷
▲배지렬⁸⁷ ▲서연호⁸⁶
▲손호목⁸¹ ▲송정위⁸⁶
▲심남진⁸³ ▲심춘석⁸³
▲안정현⁷¹ ▲엄수명⁸⁷
▲오경민⁷¹ ▲오정환⁸⁵
▲유백렬⁷⁰ ▲유수길⁸⁶
▲유승준⁸³ ▲윤용석⁸⁴
▲이광인⁸⁴ ▲이대용⁷⁴
▲이두호⁸⁸ ▲이재동⁸⁷
▲이정재⁸⁹ ▲이종달⁸³
▲이준근⁸⁶ ▲이찬구⁸¹
▲이필선⁸³ ▲이한호⁸⁰
▲이해동⁸¹ ▲임동관⁸⁵
▲임완빈⁸⁵ ▲임종두⁸⁸
▲장경술⁸⁵ ▲장안섭⁸⁰
▲전재송⁸⁷ ▲정동수⁷⁰
▲정진택⁸⁶ ▲정형배⁸⁸
▲정희경⁸⁵ ▲조의상⁸⁶
▲최행주⁷⁰ ▲현인준⁸⁹
▲현임중⁸⁰

◇獸醫科大學

▲고의식⁸⁰ ▲김영정⁸⁵
▲김용덕⁸⁷ ▲김종건⁸⁹
▲나병무⁸⁴ ▲남영중⁸³
▲서정순⁸⁹ ▲유천희⁷²
▲윤익현⁷⁴ ▲이영원⁹³
▲이우기⁸⁷ ▲이원섭⁷⁴
▲이한길⁸⁵ ▲정영화⁸⁰
▲조병하⁸² ▲홍성민⁷⁰
▲홍순옥⁸⁵

◇藥學大學

▲김문갑⁸⁸ ▲김성오⁸¹
▲김인제⁸⁹ ▲김종욱⁷⁰
▲김충경⁸⁹ ▲김태봉⁸³
▲문명술⁸⁰ ▲박명환⁷⁷
▲심상혁⁸⁹ ▲안승호⁷¹
▲유성렬⁸⁵ ▲윤선렬⁸⁵
▲이민화⁸⁹ ▲이원재⁸⁷
▲이정자⁸⁴ ▲임남철⁸⁵
▲임상웅⁸⁴ ▲전하창⁷¹
▲정근화⁸⁷ ▲조병하⁸⁵
▲조정식⁸⁶

◇音樂大學

▲곽상엽⁸⁵ ▲권영주⁸¹
▲김희태⁸⁷ ▲노인경⁸⁸
▲박지영⁸⁸ ▲박지혜⁸¹
▲이숙미⁸⁸ ▲이승욱⁸⁹
▲이영자⁸⁹ ▲장혜실⁷³
▲전성환⁷² ▲황철익⁸⁷

◇醫科大學

▲강성용⁸⁵ ▲강진화⁸⁶
▲강홍도⁷⁶ ▲김봉석⁸⁸
▲김봉석⁸⁹ ▲김선진⁸⁶
▲김승경⁸⁴ ▲김현규⁸⁹
▲김흥기⁷⁶ ▲민충기⁸⁷
▲박영수⁸⁵ ▲변선규⁸⁶
▲서대식⁸⁵ ▲서재현⁷⁵
▲송영욱⁸⁰ ▲송운영⁸¹
▲송정환⁸⁸ ▲안병완⁷⁶
▲안 혁⁷⁷ ▲양희진⁸⁸
▲유세화⁷¹ ▲이강욱⁸⁹
▲이상일⁸⁷ ▲이수일⁷⁵
▲이인재⁷³ ▲이재순⁸⁶
▲이종국⁸⁷ ▲이호급⁸³
▲이흥복⁸⁴ ▲임영식⁸²
▲장순명⁸⁸ ▲장영덕⁸⁸

▲정동진⁷⁶ ▲정익수⁸²
▲정태산⁸⁹ ▲최용천⁸⁹
▲최하진⁸¹ ▲한부경⁸⁹
▲허 용⁸⁹

◇齒科大學

▲김강용⁸⁵ ▲김영균⁸⁵
▲김종배⁸² ▲김진규⁸²
▲김축준⁸² ▲김현덕⁸²
▲김홍석⁸⁵ ▲문명용⁸⁴
▲박동관⁸⁴ ▲박동일⁸³
▲상기중⁸⁶ ▲신일영⁸³
▲신춘식⁷⁸ ▲양동규⁸⁷
▲엄인용⁸⁸ ▲원문청⁷⁷
▲유양석⁸⁹ ▲윤수한⁸¹
▲이강주⁷⁷ ▲이광건⁷⁹
▲이기택⁸⁹ ▲이민규⁸³
▲이상건⁸⁴ ▲이상신⁸⁶
▲이상표⁸³ ▲이준기⁸⁰
▲이중희⁸⁷ ▲장도훈⁷⁶
▲조문주⁸⁹ ▲황세일⁸⁸
▲황해순⁸²

◇大學院

▲고재홍⁸⁴ ▲김웅서⁸⁴
▲김항복⁷⁶ ▲오인환⁸⁹
▲이명호⁷⁸ ▲정원박⁸¹
▲조석준⁸⁷ ▲조영제⁸⁴
▲채의업⁸²

◇經營大學院

▲구자일⁸⁸ ▲이강선⁷²
▲이재호⁷⁰

◇保健大學院

▲이정지⁷⁶ ▲이종현⁸⁸

◇司法大學院

▲김정길⁸⁵ ▲조병길⁸⁹

◇行政大學院

▲김길조⁸⁴ ▲김종면⁸⁸
▲김주섭⁷⁷ ▲김홍대⁷⁰
▲박길홍⁸⁶ ▲박명식⁸⁹
▲신영국⁸¹ ▲유동재⁸⁹
▲이규이⁸⁶ ▲이석봉⁸⁴
▲이준근⁷⁰ ▲임동남⁸⁸
▲최봉기⁷⁷ ▲허재구⁷³

◇環境大學院

▲김건호⁷⁷ ▲김한수⁸⁷
▲박형배⁸⁸ ▲이흥태⁸⁸
▲채선업⁸²

◇최고산업전략과정

▲강경모⁸¹ ▲김상모⁷⁷
▲김성길⁷⁷ ▲김영섭⁸⁰
▲김형술⁷⁷ ▲박영운⁸⁵
▲박우용⁸⁴ ▲박재홍⁷⁷
▲박형국⁸² ▲신흥우⁸⁵
▲안병수⁸⁹ ▲오세희⁸²
▲오 현⁸⁵ ▲윤병철⁸³
▲이정구⁸¹ ▲이창규⁸¹
▲장대훈⁸⁹ ▲장일재⁸³
▲조규반⁷⁷ ▲진원호⁸³
▲최동수⁸² ▲최재영⁸¹
▲최창식⁸¹ ▲한미화⁸⁵
▲홍종민⁸⁶ ▲황영석⁸⁰

은행지문번호:

7500875

대 체 구 좌:

010017-31-0621565